

2024. 11. 01 - 11. 03

2024 김해시민영화제

김씨네

“김해시민이 만든 영화의 들판”



김해문화재단
GIMHAECULTUREFOUNDATION

주 관 |



경상남도
GYEONGNAM



영상미디어센터

모든 관객문화예술포함 모듬이극장

모듬이극장 관객문화예술포함 모듬이극장

공동기획 |

김씨네클럽, 그림책모임 다뎡클, 대구 참씨네방앗간, 도원제능봉사단, 부산 모듬이극장 관객활동가 10기, 영재기움 프로젝트 연구회 상상을 현실로, 책방 묘미, 신해장인성문화진흥회, 서울 냇뎡벗필름

상영관

김씨네마을극장 1 : 롯데시네마, 김해부원
김씨네마을극장 2 : 김해문화의전당 영상미디어센터

2024 김해시민영화제 개막작 <동주>

복 합 문 화 공 간

명 월 — 明月

1F 카페 + <가꿈> 굿즈 전시공간

2F 로컬브랜드와 도서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



김해문화
콘텐츠 플랫폼

가꿈

김해지역작가와 문화도시김해가
함께 만들어가는 브랜드



가꿈아트마켓
스마트스토어



목 차

영화제 소개	5
상영가이드 및 상영관 안내	6
공식 포스터	7
상영일정표	8
개막작	10
폐막작	12
시민추천선	14
독립장편초청전	24
시민기획단편선	30
특별상영	64
특별기획프로그램	78
시 읽는 영화제	79
동네가게소폰서	80
작품색인	83
필름제공처	84
김해시민영화제를 만든사람들	86
발행정보	88

김씨네 마을잔치로 초대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도 영화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오랜 바람의 결실로 시작된 김해시민영화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김해시민영화제는 영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모인 시민기획단 ‘김씨네클럽’과 모퉁이극장, 영상미디어센터가 협업하여 시민, 관객, 커뮤니티 중심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영화제입니다.

깊어져 가는 가을의 끝자락에 2024 김해시민영화제는 ‘별이 빛나는 김해의 밤’을 주제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김해문화의전당 일대와 롯데시네마 김해부원에서 열립니다. 기획단과 시민들의 투표로 선정된 개막작 <동주>는 김해의 밤하늘 아래 야외스크린에서 상영되며 시를 노래할 수 없는 암흑의 시대에 별을 꿈꾸고 시를 노래한 ‘동주’의 마음이 힘든 시기를 겪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응원이 될 것입니다.

올해도 호평받은 대중성 있는 장편영화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지역 단편들을 많이 초청했고 영화 상영 외에도 GV, 포럼, 네트워크 파티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최근 개봉해 뛰어난 영상미와 연기로 주목받고 있는 독립영화 <딸에 대하여>와 <장손>, 이미랑 감독특별전, 영화 미래를 책임질 신인배우들의 ‘배우특별전’으로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시 읽는 영화제’라는 독특한 콘셉트로 진행됩니다. 영화 상영 전에 시민 낭독자가 관객에게 시를 먼저 들려줍니다. 시민의 목소리로 전해지는 시와 영화가 어우러져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지지하는 우정을 담은 영화들과 죽기 전 마지막 피아노 연주를 담은 폐막작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는 가을밤, 여러분의 마음에 한 편의 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역영화제 예산삭감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획단과 운영진은 시민들의 후원과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37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제를 찾은 모든 이에게 반짝이는 영화의 별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귀한 인연과 영화와 시를 2024 김해시민영화제에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텀블벅으로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 주신 시민분들과 영화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김해시민영화제 시민기획단 일동

상영 가이드

티켓 안내

- 티켓 가격 : 무료
- 예매 방법 : 온라인 예매, 현장 발권

① 온라인 예매(선착순)

- 온라인 예매 기간 : 10월 22일(화) ~ 10월 29일(화) 24:00까지
- 예매 링크 : <https://forms.gle/WXfurUYC2p1EXz7K7>
- 신청 순서에 따라 개별 확정 문자 안내

사전예매 QR코드

- 영화제 기간 내 본인 확인 후 안내데스크에서 실물 티켓 교환 (당일 상영작에 한하여 발권 가능)

② 현장 발권

- 온라인 예매 외 현장 당일 잔여 티켓 선착순 발권
- 현장 발권은 해당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행사 장소 안내데스크에 문의 (김해문화의전당, 롯데시네마 김해부원 안내데스크)

상영관 운영 안내

- 모든 관람객은 티켓을 소지해야만 상영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 하며, 상영 시작 10분 후부터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 영화 상영 중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은 불가하며 카메라 등 녹화 장비 반입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 상영작 관람 등급에 따라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영관 내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의 편안한 영화 관람을 위해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매 QR코드

상영관 안내

김해문화의전당 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 : 김해문화의전당 영상미디어센터 2층 시청각실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060(내동) 김해문화의전당 055)320-1234

대중교통

- 경전철 : 박물관역 1번 출구, 도보 7~8분
- 일반버스
- 법원등기소입구 : 7, 127
- 김해문화의전당 : 5-1, 8, 58, 59
- 광남백조아파트 : 1, 1-1, 5-1, 8-1, 14, 56 58-1, 59-1, 60, 61, 71, 123, 128, 128-1, 130, 1004
- 주차장 : 공연 관람객 3시간 무료 (이후 정상요금, 티켓 제시 필수)
요금 : 최초 30분 무료, 초과 후 30분마다 500원, 일일 요금 5,000원

롯데시네마 김해부원

상영관 : 롯데시네마 김해부원 3관
주소 : 경남 김해시 부원동 김해대로 2352(아이스퀘어물 3층) 055)230-8810

대중교통

- 지하철/경전철 : 부원역 1번 출구, 직통 연결
- 일반버스
- 부원역 : 1, 1-1, 2, 2-1, 3-1, 6, 7, 30, 35, 44, 58-1, 300

2024 김해시민영화제 김씨네 포스터 스토리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는 일제강점기 민족말살정책이 만연하던 1940년대, 시인 윤동주 일대기와 그의 사촌이자 친구인 송몽규 열사의 삶을 모티브로 한 실화로 2016년에 개봉하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참담한 현실에서 꿈을 향해 나아갈 수도 주저앉을 수도 없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서정적이고도 담담하게 그렸습니다.

유학에 앞서 창씨개명이란 일제 정책과 직면하여 고뇌와 핍박을 겪는 내용에서 이름 석 자가 곧 죽도록 지켜야 할 자존심을 보여주었고, 평생을 함께한 친구이자 영원한 라이벌인 송몽규와 이념 차로 다투면서도 둘은 각자의 뜻을 존중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일제 통치하에서도 총이나 펜이나 도구만 다를 뿐, 나라 사랑에 쏟는 힘은 모두 같은 마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주는 애통하게도 1945년 2월 16일,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갖은 고문과 바닷물 주입으로 27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죽음 직전의 모습을 당시 간수가 말하기를, 그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죽었는데, 소리는 마치 '대한 독립 만세'라고 들렸다 합니다. 독립과 자유에 대한 끝없는 열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가 남긴 육필 원고는 친구 강처중이 쓴 발문을 통해 애통과 그리움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영화 틈틈이 흘러나오는 그의 시에서 젖은 낙엽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부여잡은 유고작, <별 헤는 밤> <흰 그림자> <참회록> <눈 감고 간다> <병원> <쉽게 쓰여진 시> 앞에 안일한 나의 시를, 이 영화의 제목로 바칩니다. 외롭고 지친 이들과 함께 별을 헤는 동주 이야기, 오늘 밤은 당신과 함께 별을 헤겠습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 그리고 당신!

김해 시민 여러분!

별이 스며든 영화 <동주>의 숲에서 만나요.

by 김해시민영화제 시민기획단 박선해

김씨네 열리는 가을날	김씨네-마을극장1 롯데시네마 김해부원 3관	
가을 아침	11.2(토요일) 10:00-12:04 ⑫ CT 124' 시민추천선① 퍼펙트 데이즈 책방 묘미	11.3(일요일) 10:00-11:43 ⑥ CT 103' 시민추천선③ 로봇 드림 영재키움 프로젝트 연구회 상상을 현실로
	13:00-14:53 ⑮ CT 113' 시민추천선② 나의 올드 오크 그림책모임 다정한 핑퐁클럽	13:00-14:50 ⑮ GV 110' 특별상영③ 시를 담은 얼굴들 : 배우특별전 김최용준, 시혜지, 장요훈, 전도희
가을 오후	16:00-17:46 ⑫ GV 106' 독립장편초청전① 말에 대하여	16:00-16:49 ⑥ CT 49' 시민추천선④ 쏘아올린 불꽃, 밑에서 불까? 옆에서 불까?
가을 해질녘	19:00-20:45 ⑥ GV 105' 독립장편초청전② 어른 김장하 도원재능봉사단	18:00 폐막식 김해 시민이 만든 영화의 들판 19:00-20:43 ⑥ 103' 폐막작 류이치 사카모토 : 오퍼스

상영시간 | 등급 | 러닝타임 | 프로그램명 | 시민기획단

등급

⑥ 전체관람가 ⑫ 12세 이상 관람가
⑮ 15세 이상 관람가 ⑮ 18세 이상 관람가

연계 프로그램

GV 관객과의 대화
CT 관객토크 및 이벤트

김씨네 열리는 가을날	김씨네-마을극장2 김해문화의전당 영상미디어센터 시청각실	
11.1(금요일)	11.2(토요일) 10:00-11:48 ⑮ GV 108' 시민기획단편선① 웰라이프한 삶을 위하여 산해정인성문화진흥회×목포국도 1호선독립영화제 10:00 김씨네 마을회관① @파머스가든 씨네클럽 릴레이 만담 “사랑이 어떻게 너에게로 왔는가”	11.3(일요일) 10:00-11:31 ⑫ GV 91' 시민기획단편선④ 악수할까요? 김씨네클럽×원주옥상영화제
	13:00-14:24 ⑥ GV 84' 시민기획단편선② 별을 찾습니다 김씨네클럽×광주독립영화관 14:00 김씨네 마을회관② @영상미디어센터 멀티미디어실 포럼 지역에 스며든 영화제 “연결의 기쁨”	13:00-14:10 ⑫ GV 69' 시민기획단편선⑤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경남단편선
17:00-18:00 @애드룸마당 개막식 나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16:00-17:25 ⑮ GV 85' 시민기획단편선③ 바라던 바다 대구 참새씨네방앗간×부산독립영화제	15:00-16:25 ⑮ GV 85' 시민기획단편선⑥ 우리 일상에 관찰 카메라가 있다면 부산 관객문화교실 10기×대구단편영화제
18:20-20:10 ⑫ GV 110' 개막작 동주 이준익 감독 마스터스 토크	17:00-19:01 ⑫ 121' 특별상영① @애드룸마당 장손 19:00-20:05 ⑮ GV 65' 특별상영② 우리에 대하여 : 이미랑 감독전	

시민기획단편선① 목포단편선 관 값 | 도애의 시간 | 복순씨의 원데이클라쓰 | 후회하지 않는 얼굴
시민기획단편선② 광주단편선 주인을 찾습니다 | 핸드메이드 케이크 | 혼자 | 양림동 소녀
시민기획단편선③ 부산단편선 슈퍼히어로 | 누룩의 시간 | 흐린 영화 | 삶이 살을 먹는다
시민기획단편선④ 강원단편선 8월의 크리스마스 | 파눔티콘 | 꿈은 이루어진다 | 마이디어
시민기획단편선⑤ 경남단편선 순간! 화원 | 계약만료 | 우도마을 다이어리
시민기획단편선⑥ 대구단편선 모르게 | 야식금지클럽 | 헤어 나올 수 없는
특별상영② 이미랑감독전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 목욕 | 춘정
특별상영③ 시를담은얼굴들 줄음쉼터 | 무비스타 시혜지 | 미래의 집 | 마이디어



개막영화

동주

한국 | 2016 | 극 | 110min | DCP | B&W | 12+

영화 <동주>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 칠혹 같은 어둠의 시대 속에서 서로에게 빛이 되어 준 윤동주와 송몽규의 우정과 고뇌를 그린 영화다. 시인의 꿈이 또 다른 꿈과 만나 저항의 멜로디로 승화되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이 영화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정과 사랑, 인간의 연대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한 시로 변모하는지를 감동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제37회 청룡영화상에서 인정받은 <동주>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빛을 따라야 할지 깊이 성찰하게 한다. 그들의 시는 오늘날에도 새로운 질문과 함께 우리의 가슴속에서 울려 퍼진다.

이준익

한국 영화계의 대표적인 연출가로 역사와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담은 작품들로 잘 알려져 있다. <왕의 남자>(2005)로 큰 성공을 거두며 한국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동주>(2016), <박열>(2017) 등 역사적 인물을 다룬 작품들로 꾸준히 사랑받았다. 이준익 감독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선과 시대의 아픔을 따뜻하게 그려내는 연출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달해 왔다.

개막식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시 읽는 영화제' 2024 김해시민영화제 개막식은 김해 문화의전당 애두름마당에서 열린다. 식전 공연에 이어 개막식 공연으로는 김해와 경남에서 활동하는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김해 모던심포니가 야외에서 별이 빛나는 밤을 적셔줄 감미로운 영화 음악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영화 <동주> 상영이 끝나면 김해를 찾은 특별 게스트 이준익 감독과의 토크가 준비되어 있다.

개막공연: 김해 모던 심포니

김해 모던 심포니는 2021년 3월,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 함께 창단된 신생 예술단체다. 경남·부산·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음악전공자들이, 중심지인 경상남도 김해시에 모여 세계적인 지역 오케스트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다. '모던'이라는 이름은 고전·낭만·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현대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는 예술가들이 표현한다는 것, 아울러 현대라는 시간에서 탄생한 음악과 문화예술까지 깊게 탐구한다는 의미가 있다. 예술에 대한 열정과 의욕으로 결속된 본 단체는 다양한 음악을 연구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으며, 예술가라면 누구나 순수예술의 척박함을 몸소 느끼는 이 시점에 젊음의 생동력을 가진 예술단체가 탄생하고 활동하게 된 것에 저마다 가슴 벅찬 감정을 안고서 음악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지역민의 마음을 적시는 음악, 지역민이 지지하고 공감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 경남·부산·울산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단체다.



폐막영화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

일본 | 2023 | 다큐멘터리, 음악 | 103min | DCP | B&W | G

아시아인 최초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은 거장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 20곡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클래식, 얼터너티브, 전자음악을 넘나들며 실험을 멈추지 않았던 사카모토가 자신의 50년 음악 인생을 보여주는 20곡을 직접 선곡했다. 영화음악 데뷔작인 <전장의 크리스마스>(1983)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마지막 황제'(1987), '괴물'(2023)에 올리는 '아쿠아' 등이 이어진다. 영화 속 피아노, 조명만으로 가득한 무대에서 움직이는 카메라워크 또한 감정을 움직인다. 힘겨운 숨결과 함께 끝을 준비하는 거장의 마지막 인사가 관객의 마음에 오래도록 머문다.

소라 네오 Sora Neo

미국의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이다.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2023), <해피엔드>(2024)를 포함한 내러티브 및 다큐멘터리 영화를 감독했다.

소라 네오 감독은 사카모토의 아들이다. 두 사람이 부자(父子) 관계라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오퍼스>의 제작 총괄은 사카모토의 매니저이자 아내 소라 노리카이다. 거장은 세상에 남기는 작별 인사를 아내와 아들에게 맡겼다.

폐막식

김해 시민이 만든 영화의 들판

사흘간 열린 김해시민영화제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영화제를 기약할 마지막 축제의 장인 폐막식은 롯데시네마 김해 부원에서 진행된다. 폐막식은 간단한 마무리 행사와 이벤트, 폐막작 상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폐막작으로는 영화음악의 거장 류이치 사카모토의 생의 마지막 피아노 연주를 담은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가 상영된다.

시민추천선

시민추천선은 올해 국내에서 호평받았던 좋은 영화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단이 추천한 영화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님아서 서로에게 스며드는 우정, 달라도 서로 지지하는 우정과 연대, 빈부되는 일상의 소중한,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기억의 여정을 담은 네 편의 영화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돌아르게 한다.



퍼펙트 데이즈

일본, 독일 | 2023 | 극 | 124min | DCP | Color | 12+

도쿄 공공화장실 청소부인 히라야마의 일상은 단조롭다. 매일 아침 똑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일을 하고 나무 사이에 비치는 햇살을 쬐는다. 일을 마치면 식당에 가서 한 잔의 술을 마시고 헌책방에서 산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차 안에서 듣는 감미로운 음악과 책, 나무 사이의 햇살, 한 잔의 술로도 충분한 일상을 살던 그에게 조카가 찾아오게 되고 그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느리게 똑같이 반복되는 충분한 그의 일상에서 반짝이는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영화.

빔 벤더스 Wim Wenders

독창적인 시각과 깊이 있는 서사로 이름이 알려진 영화 감독이다. 대표작으로는 《파리, 텍사스》, 《베를린 천사의 시》,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등이 있다. 〈퍼펙트 데이즈〉는 빔 벤더스 감독의 대표작 중 하나로, 소소한 일상에서 발견하는 행복과 의미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시민기획단 소개

책방 묘미

책방 묘미는 흥동에 기반을 둔 길고양이 인식 개선 공간입니다. 처음에는 카페로 시작해서 책방을 겸하고 있어요. '길고양이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김해'를 바라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로는 김해FM흥동꿈꾸는 고양이마을방송국, 행복한흥동맘모임, 김해동네고양이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로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책 모임과 독립영화를 보며 이야기 나누기도 합니다. 활발한 생명 존중 문화를 존중하는 견인자로서 지역인들의 인식 개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영작 추천사

하루를 어떻게 쪼개서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 주인공의 삶을 보고 싶다면? 영화 속 주인공은 도쿄 시부야의 공공시설 청소부 '히라야마'는 매일 반복되지만 충분한 일상을 살아간다. 그의 일상생활은 단순하지만 과묵하면서도 성실 그 자체다. 조카가 그의 일상에 들어오면서 단순한 삶이 어떻게 바뀔까? 영화를 보면서 일상 속 누리는 삶을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햇살 한 조각,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늘 보기, 작은 생명 존중, 헌책방, 카세트테이프 등" 무엇보다 음악과 책, 자연이 함께 하는 일상을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이 원하는 퍼펙트 데이는 어떤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영화로 강력히 추천한다.

책방 묘미 **장행영**



나의 올드 오크

영국, 프랑스, 벨기에 | 2023 | 국 | 113min | DCP | Color | 15+

영국 북동부의 한 폐광촌, 어느 날 한 무리의 낯선 이주민을 태운 버스가 조용하고 작은 마을에 들어선다. 마을에서 오래된 펌을 운영하는 TJ는 사진작가가 꿈인 '야라'라는 소녀와 서서히 친해진다. 그런 둘의 우정을 오래된 마을 친구들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배제하려 하지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야라네 가족으로 인해 작은 공동체는 서서히 변해간다.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이다.

켄 로치 Ken Loach

켄 로치는 현대 유럽을 대표하는 좌파 감독으로 노동자들의 실제 삶과 그들이 겪는 문제를 진솔하게 담아내는 작품을 만들어왔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 <미안해요, 리키>(2019)에 이은 켄 로치의 3부작 마지막 영화인 <나의 올드 오크>는 줄곧 노동자 계급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켄 로치 감독의 마지막 은퇴작이다.

시민기획단 소개

그림책 모임 다정한 핑퐁클럽

다정한 핑퐁클럽(다핑클럽)은 김해 인문책방 '생의 한가운데'에서 13명의 멤버와 함께 그림책으로 마음과 마음을 잇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그림책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나의 내면과 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인의 정서를 내면화하여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그림책을 매개로 나를 바라보는 경험을 통해 내가 바로 서고,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희망할 수 있는 삶이 순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영작 추천사

2016년, 영국 북동부 폐광촌을 배경으로 시작되는 이 영화는 시리아 난민을 태운 버스가 작은 마을에 도착하면서 시작된다. 난민의 이주로 인해 집값이 하락했다고 탓을 하는 모습, 혐오스러운 말들, 난민 아이들을 괴롭히며 폭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에서는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하지만 극단으로 치달은 영화는 이후 두 주인공 TJ와 야라가 특별한 우정을 쌓아가면서 다양한 장면으로 나아가게 된다. 상실에 대한 아픔을 음식을 건네며 서로를 위로하는 장면에서는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순수한 인간애가 전해져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남겨준다.

다핑클럽×인문책방 생의 한가운데 대표 박태남



로봇 드림

스페인, 프랑스 | 2023 | 애니메이션 | 103min | DCP | Color | G

뉴욕을 배경으로 한 감동적인 애니메이션 영화로, 외로운 개와 그의 친구 로봇의 우정을 그린다. 개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로봇 친구를 구입하고, 둘은 함께 다양한 모험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로 로봇이 바닷가에 버려지면서 둘은 헤어지게 되고, 개는 로봇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영화는 따뜻한 이야기와 독특한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통해 우정, 상실, 그리고 다시 만날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파블로 베르헤르 Pablo Berger

스페인 출신의 영화감독이자 각본가로 독창적인 스타일과 감성적인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영화 <백설공주의 마지막 키스>(2012)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 작품은 고전 동화를 흑백 무성영화 스타일로 재해석해 많은 상을 받았다. 베르헤르 감독은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시각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인간의 감정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작품을 만들어 왔다. <로봇 드림>에서는 따뜻한 우정과 상실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섬세하게 그려냈다.

시민기획단 소개

영재기움 프로젝트 연구회 상상을 현실로

영재기움 프로젝트 연구회는 경남 지역의 소외계층 영재 학생들과 그들을 지도하는 멘토 교사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의해 영재로 성장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돕고자 합니다. 멘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세계관을 넓히고, 보다 다채로운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학생들이 학업적 성장을 넘어 문화적 소양을 갖춘 영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영작 추천사

<로봇 드림>은 감동적인 스토리와 따뜻한 연출로 기술과 인간의 교감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내년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생성형 AI 교육이 확산되는 시점에 이 영화는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성찰할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로봇과 인간의 우정을 통해 사랑, 상실, 그리고 성장을 탐구하며 독창적인 이야기로 관객의 마음을 울린다. 화려한 특수효과 없이도 진정성과 철학적 메시지를 담아내며 독립영화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기술 시대 속 인간성을 되새기게 하는 <로봇 드림>을 진심으로 추천한다.

영재기움 프로젝트 연구회 상상을 현실로 박현성



쏟아올린 불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

일본 | 1995 | 극 | 49min | DCP | Color | G

1993년 일본 후지TV에서 방영된 동명의 단편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영화로, 이와이 슌지 감독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된 작품이다. 영화는 한 여름날, 작은 해안 마을에서 벌어지는 소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랑과 호기심, 그들의 성장을 섬세하게 그린다.

주인공 노리미치와 유스케는 친구들과 불꽃을 옆에서 보면 동글지 납작할지 논쟁을 벌인다. 그들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불꽃놀이를 보러 가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평범한 호기심은 감정적 성장의 시작점이 된다.

한편, 부모님의 이혼으로 2학기에 전학을 앞둔 나즈나는 노리미치와 유스케 사이에서 혼란을 겪으며 탈출을 계획하고 수영 내기를 하는 둘 중 이긴 사람과 함께 떠나고자 결심한다.

이와이 슌지 Shunji Iwai

〈러브 레터〉, 〈4월 이야기〉, 〈릴리 슈슈의 모든 것〉 등 감성적인 작품으로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팬층을 확보한 일본 인기 감독이다. 이와이 슌지 감독은 첫 사랑, 성장, 소외 등 청소년기의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서정적인 연출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상영작 추천사

MBC 베스트셀러극장, KBS 드라마 스페셜과 같은 TV 단막극을 좋아한 사람이라면 50분 남짓한 이 영화를 보는 순간 추억에 잠길 것이다. TV 보며 아침 식사하는 장면, 학교 가는 길에 친구들과 오락실 캐릭터를 흉내 내며 장난치는 장면, 교실 책상 위에 올라서는 장면 등 마치 어린 시절 앨범을 펼쳐보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며 어릴 적 교실과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동시대를 살아온 이라면 영화 보는 내내 깊은 향수와 소중한 기억이 되살아 날 것이다.

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동명의 애니메이션 작품과 90분짜리 다큐멘터리 〈소년들은 불꽃을 옆에서 보고 싶었다〉도 함께 보길 추천한다. 특히 다큐멘터리는 주연 배우들이 영화 속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영화가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그 과정과 숨겨진 이야기를 전한다. 또한, 제목을 짓는 과정에서 생긴 이야기, 감독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미야자와 켄지의 '은하철도의 밤'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들려준다.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다면 다큐멘터리도 큰 재미와 감동을 줄 것이다.

김씨네클럽 정동준

독립장편초청전



독립장편초청전은 현재 직시해야 할 사회문제를 담은 두 편의 좋은 독립영화를 초청하여 영화를 연출한 감독과 배우, 관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어른 김정하>는 지역의 봉사커뮤니티가 진행을 맡아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시간을 마련했고 감독과 배우가 초청되어 있는 <딸에 대하여>는 김해문화의전당 관계자가 진행을 맡아 관객과 즐거운 소통을 할 예정이다.



딸에 대하여

한국 | 2024 | 극 | 106min | DCP | Color | 12+

영화 <딸에 대하여>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엄마와 동성 연인과 함께 돌아온 딸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다. 생계가 어려운 딸은 엄마에게 목돈을 부탁하지만, 가진 것이라곤 낡은 집 한 채뿐인 엄마는 이를 도와줄 수 없다. 결국 딸은 동성 연인과 함께 엄마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고, 이에 따라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다. 엄마는 요양원에서 홀로 외롭게 늙어가는 어르신을 돌보며 자신과 딸의 미래를 투영하고 세대 간의 소통과 소외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이 영화는 이미랑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2023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CGV상과 올해의 배우상을 받은 작품이다.

이미랑

서울예술대학교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문예창작과 영화를 공부했다. 단편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2005), <목욕>(2007), <춘정>(2013) 연출을 통해 이주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주목한 작업을 이어왔다. 이창동 감독 <시>(2010), 장률 감독 <춘몽>(2016) 스크립터로 참여하였고 <딸에 대하여>는 첫 장편 영화다.

상영작 추천사

가끔 엄마의 세계에 대해 생각한다. 오랫동안 나는 딸의 입장이었다. 딸로서 바라보는 엄마의 세계는 한없이 나와 다르고 답답하고 완고했다. 영화의 엄마처럼. 모진 한마디보다 감정을 꼭 누른 채 텅 빈 시선으로 먼 곳을 아득하게 바라보는 오민애 배우의 눈빛과 표정, 한숨, 침묵이 엄마의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한다. 어느새 닳아가는 딸의 모습도 보인다. 엄마도 길을 잃고 헤멜 수 있음을, 완전히 다른 타자를 자신의 공간에 들이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일상을 영화를 통해 본다. 돌봄 노동과 젠더, 세대 갈등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딸과 딸의 연인, 엄마, 제희가 함께 마지막을 보내는 판타지적 장면과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던지는 엄마의 다른 눈길은 그래도 작은 위안을 건넨다. 감독의 말처럼 이 영화는 나의 이야기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결국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이 영화가 딸이 아니라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줘서,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는 용기를 엄마에게서 보게 되어 참 감사하다.

김씨네클럽 이지혜



어른 김장하

한국 | 2023 | 다큐멘터리 | 105min | DCP | Color | G

〈어른 김장하〉는 평생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며 나눔을 실천한 김장하 선생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한약사의 길을 걸은 그는,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며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영화는 그의 삶을 통해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지, 나눔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탐구한다. 김장하 선생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잔잔한 울림을 전하며 모두에게 따뜻한 영감을 불어넣는다.

김현지

김현지 감독은 한국의 다큐멘터리 연출가로, 사람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에서부터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작품들로 주목받고 있다. 〈어른 김장하〉는 김현지 감독의 대표작으로, 평생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김장하 선생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다. 이 작품은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고 진정한 어른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감독의 섬세한 연출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시민기획단 소개

도원재능봉사단

도원재능봉사단은 2014년 개인과 국제클럽 봉사자들이 모여 도원결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의료봉사와 생일 챙기기, 쌀 기부 등 복지시설 지원, 어르신 이 미용 서비스와 영정사진 제작과 난방비 지원사업 그리고 환경정화 활동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가족봉사단체입니다.

상영작 추천사

눈보라가 치는 겨울날, 산 고개를 넘고 있던 스님은 마주 오는 험벗은 걸인을 지나치는데 그대로 가던 얼어 죽을 듯해 보였다. 고민하던 스님은 돌아가 자기 외투를 벗어 주는데 그 걸인은 당연한 듯이 받고 그냥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보요, 고맙다 말은 해야 할 것 아니요?” 하니 돌아오는 말이 “줬으면 그만이지, 뭘 칭찬으로 돌려받으려 하오?” 이에 스님이 무릎을 탁 쳤다고 하는 고사는 어느 자리에서 김장하 선생이 들려주신 이야기이다. 무주 상보시. 한마디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보시이다.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그 정도는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사사로움을 넘어서, 기대하지도 간섭하지도 않는 선생의 묵묵한 베풀을 담은 영화 〈어른 김장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짜 '어른'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도원재능봉사단 박보근

시민기획단편선

시민기획단편선은 각 지역영화제 프로그래머가 보내 준 목포, 부산, 대구, 광주, 원주 지역의 독립단편 작품들을 선별해서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각 섹션을 맡은 시민기획단과 각 지역 커뮤니티는 상영작을 선정하고 기획과 이벤트를 준비한다. 단편영화를 만든 지역감독과 배우들이 초청된 GV를 통해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시민기획단편선 ① 목포단편선 : 웰라이프한 삶을 위하여

산해정인성문화진흥회 × 목포국도1호선독립영화제

목포국도1호선독립영화제 추천사

목포국도1호선독립영화제는 올해 11회를 지난여름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총 1,057편의 장단편이 응모된 가운데 60여 편의 상영작이 나흘간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김해시민영화제에서 상영될 4편의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도애의 시간>은 내 생애 첫 영화제 섹션에서 작품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관값>은 남자연기상을, <복순씨의 원데이클래스>는 여자연기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후회하지 않는 얼굴>은 배우들의 앙상블이 아주 뛰어난 작품이기도 합니다. 1,057편의 작품에서 추천된 목포국도1호선독립영화제를 만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포국도1호선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성우

산해정인성문화진흥회 선정사

우리는 산업 사회를 거쳐 첨단사회로 발돋움하면서 자본주의의 유입으로 물질문명에 지나치게 만연되어 가는 현실에서 이미 물질의 노예가 되어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물질문명의 테두리에 갇혀 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시민영화제의 개최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기분이라 할 것입니다. 기획된 대주주의 시나리오에 의하지 않고 시민의 자발적 사상과 생각을 시나리오에 담아 필름으로 표출한 작품들을 출품한 제작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주최하느라 고생한 김해시민영화제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자발적 표출이 역사로 유유히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산해정인성문화진흥회 허남철



관 값

한국 | 2023 | 극 | 25min | DCP | Color | 15+

4억 원의 빚을 지고 자살을 고민하는 경준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물들과의 갈등을 통해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탐구해 가는 영화이다. 독특한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긴장감과 과감한 카메라워크가 돋보이며, 감독의 에너지가 영화에 강렬한 매력을 선보인다.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되며 인생의 선택이 서로 엮여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현실적 대사, 섬세한 캐릭터 묘사를 통해 우리 삶의 가치관과 관계에 대해 한 번은 생각해 보는 의미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이경민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연예과를 졸업하고 숭실대학교에서 영화예술을 전공하였다. 배우와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네 이 년놈들>, <3차 성징>, <관 값>을 연출하였고 박지수 감독의 영화 <야행성>에서 주인공 하영을 연기하였다.

시민기획단 소개

산해정인성문화진흥회

산해정인성문화진흥회는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이며 영남학파의 거두이신 남명 조식 선생의 실천주의 정신을 잇고자, 물질문명으로 인한 사회적 인성 문화의 불균형적 문제를 산(山)과 바다(海) 등 자연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제고하며,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선비정신 문화를 재정립하여 상처 없는 사회, 치유하는 문화생활을 통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성 문화의 진흥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산해정인성문화진흥회 허남철



도애의 시간

한국 | 2024 | 극 | 20min | DCP | Color | 12+

“죽은 사람 무덤 앞에서 춤을 추면, 그 사람의 영혼을 부를 수 있다.” 지애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탭 댄스를 추려고 한다. “사람들은 언니가 미쳤다고 했어. 언니는 한번도 울지 않았거든.” 영화에서 두 번 언급되는 중요한 내레이션. 생생히 화끈거리는 상실의 통증을 속에 가둔 채 살아가고 있는 지애. 삶과 죽음은 다르지만 서로 맞닿아 있다. 지애가 아빠의 셔츠를 입는다는 것은 애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지애의 좌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지애가 머물기를 택한다면 도애는 이동하기를 택하는 인물로 언니를 미쳤다고 생각한다.

남궁건

연출, 각본,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19년 <나는 프랑스로 갈 거야>의 각본과 연출을 담당하였고 이후 <EAST>, <주연배우 계약서>, <겨울바람> 등을 연출하면서 역량을 증명해 왔다. <도애의 시간>은 <그린비치> 이후로 감독이 애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제작한 단편영화이다.

상영작 추천사

‘무덤 앞에서 탭댄스를 춘다.’ 참 희한한 일이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신과 소통하려는 욕구를 가져왔다. 신과의 소통을 원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욕구로서 자리 잡아 왔다. 아마 신의 세계 또는 이승과 저승의 합일체를 원하는지 모를 일이다. 도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내재하여 있는 욕구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춤을 추며 아버지의 영혼을 불러와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다.

산해정인성문화진흥회 **허남철**



복순씨의 원데이클래스

한국 | 2023 | 극 | 38min | DCP | Color | 12+

제주 토박이 할매 복순은 자녀들이 육지에 정착해 홀로 지낸다. 생일에 자식들이 방문할 소식에 기뻐하지만 결국 전화 한 통만 받는다. 다음 날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복순은 요가원을 개원한 동이를 만나고 남은 음식을 나누기 위해 요가원에 간다.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고 조카처럼 예뻐하던 영숙이의 지도 아래 요가를 시작한다. 아프고 뻣뻣한 몸을 움직이며 요가 자세를 따라 해보는 복순. 그녀의 삶과 무릎 상태가 궁금해지며 여성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화가 시작된다.

최범찬

프랑스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자랐다. 국문과를 졸업 후 영화 제작 현장에 뛰어들었고, 값진 경험을 얻었다. 몇 편의 시나리오와 연출 작업을 했고, 여전히 영화 만드는 일을 진행 중이다. <면접후기>(2018), <내일로 가는 오늘밤>(2019), <널 보러 간 건 아니었지만>(2021)을 연출하였다.

상영작 추천사

누구나 삶을 통해 이야기로 만든다면 책 몇 권쯤은 거뜬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복순씨, 주관적인 삶을 추구하며 주인공으로서의 잔잔하게 삶을 풀어가며 서사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이 돋보인다. 영화의 도입부에서 어쩌면 복순씨는 마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영화 속에서 고백을 하듯 하나씩 풀어내고자 하는 중요한 시간들을 시사하고 있다. 스크린을 통해 보여주는 묵언은 마음의 눈빛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 어떤 별을 소재로 한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맥과 문맥 사이에 작가는 무얼 말하고자 하는 분연의 모습을 읽게도 하는데 이 영화는 평범한 복순씨의 일상의 페이지를 책장 넘기듯 시선을 잡으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는 재미도 시사하고 있다. 굳이 침묵하지 않아도 시작부터 끝까지 영화 속을 들여다보며 관객으로부터 손길과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다.

산해정인성문화진흥회 **홍우승**



후회하지 않는 얼굴

한국 | 2023 | 극 | 26min | DCP | Color | 12+

〈후회하지 않는 얼굴〉은 감정을 억누른 채 관계가 무너져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다룬 영화다. 주인공 재경은 남편과 친구의 배신에도 평범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킨다. 영화는 감정을 숨기는 것이 불러오는 후회와 억압된 감정이 터져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조용하면서도 강렬하게 그린다. 내면의 복잡함을 표정만으로 전달하는 재경의 모습은 관객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삶 속 감정의 무게를 돌아보게 만든다. 무표정은 우리에게 억눌린 감정의 무게를 느끼게 한다. 감정을 억누른 채 사는 사람. 삶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인내를 원하는 걸까?

노영미

미국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회화를,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였다. 인터넷 아카이브와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반복되는 패턴을 현대적인 시각 언어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품으로 〈아아아〉(2015), 〈보이지 않는 잠자는 여인, 뒤집힌 배 그리고 나비〉(2016), 〈1021〉(2021)가 있다.

상영작 추천사

인간사는 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떤 사유나 사건으로 관계가 단절되기도 한다. 헤어졌다가도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나기도 하지만, 만나더라도 좋은 관계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떠오르는 아침과 지는 저녁 노을 앞에 수많은 현장을 목격하고 무심한 발걸음이 있고 일상의 기록이라는 게 있다. 떨어지는 낙엽에 맞기도 하고 내리는 빗물에 씻기기도 하고 풍성하고 도통한 과일에 맛있는 일상을 건지기도 하고 파란 구름에 맑음을 먹기도 한다. 하루는 달콤함에서 빠져나오고 하루는 떨어지는 낙엽에 따라 벌벌 떨기도 하고 나만 너만 그런 것이 아닌 후회하지 않을 얼굴들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이 영화는 사유하게 될 시간을 줄 것이다. 잔잔하게 읽혀지는 배우의 표정이 있는 영화에 호감을 가진다.

산해정인성문화진흥회 홍우승

Since 2006

김해영상미디어센터

누구나 다양하고 즐겁게
미디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미디어 교육 | 독립·예술영화 상영 | 콘텐츠 창작지원

민간관영 영상미디어센터
MEDIA CENTER

<https://media.ghct.or.kr> | 김해대로 2060, 김해문화의전당 2층 | 문의 : 055-320-1271

시민기획단편선 ② 광주단편선 : 별을 찾습니다

김씨네클럽 × 광주독립영화관

광주독립영화관 추천사

올해 개관 6주년을 맞은 광주독립영화관은 광주 유일의 독립영화전용관으로, 매일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자 광주독립영화제, 무등영화제 등 지역 영화제가 개최되는 장소입니다. 이번에 소개되는 네 편의 영화들처럼 지역 내부도 이처럼 다양한데 지역과 지역의 다른 문화적 차이들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많아질수록 한국 영화의 미래는 어둡지 않으리란 생각입니다. 시민 스스로의 영화 창작과 향유 문화를 가꾸어나가는 김해시민영화제에 연대의 박수를 보내며, 이 영화들이 김해시민영화제를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선물 같은 시간을 선사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독립영화관 관장 **한재섭**

김해시민영화제 김씨네클럽 선정사

아마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빛과 나의 빛은 밝기가 다를 수도, 고도가 다를 수도, 심지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찾기 어렵고, 잡을 수도 없지만 우리는 고개를 들어 별을 찾습니다. 다른 이에게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빛을 눈에 담기 위해서 일까요. 이유는 밤하늘에 있는 개인의 별만큼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빛이 어둠 속에 감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분명합니다.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각자의 별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한 네 작품들 속에서 당신의 별을 찾는 활력을 마주하길 바랍니다.

김씨네클럽 **이용준**



주인을 찾습니다

한국 | 2024 | 극 | 22min | MP4 | Color | G

기숙고등학교에 다니는 시현은 멀렁거리는 버릇으로 자주 물건을 분실한다. 어느 날 중요한 발표 자료가 든 USB를 잃어버리고 다급한 마음에 기숙사 안을 찾아 헤매다 우연히 처음 보는 방을 발견한다. 그곳에서 외로운 소녀 마리를 만나게 되고 둘은 서로의 시간을 함께 하게 되는데. 시현은 발표 전까지 잃어버린 USB를 찾을 수 있을까? 대안학교인 지혜학교 학생들의 워크샵 작품인 이 영화는 조금은 서툴지만 참신한 상상력으로 십대들의 유쾌한 진지함을 보여준다. 환경과 성격이 다른 두 주인공이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보며 우리의 분실물은 원지 생각해 봐도 좋을 영화이다.

백이현

현재 광주 대안학교인 지혜학교에 재학 중인 감독은 머릿속에서 존재하는 이야기를 현실로 생생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좋아 교내 연극의 연출을 맡은 이력이 있다.

시민기획단 소개

김씨네클럽

김씨네클럽은 김해시민영화제 운영을 위해 모인 시민기획단의 이름입니다. '김해의 씨네클럽' 줄임말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영화를 매개로 다양한 문화활동과 교류를 나누고 싶은 모임입니다.

상영작 추천사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또 찾기 위한 지난한 노력들을 한다. 때로는 분실의 유무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바쁜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문득 흘러가는 구름에, 부드럽게 밀려드는 꽃향기에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반문해보기도 한다. 재기발랄한 십대 그 시절,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 마주한 시현과 마리는 우정을 나누게 되고 시든 화초가 꽃을 피우듯 서서히 생기를 띄게 된다. 정체성을 찾아 가는 여정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친구로 인해 한결 즐겁고 따뜻하다. 영화 속 말말의 이미지는 어쩌면 이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인 지도 모른다.

김씨네클럽 **김선경**



핸드메이드 케이크

한국 | 2023 | 극 | 17min | MP4 | Color | G

희수는 보조 작가로 메인작가의 구박과 함께 마감에 시달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윗집의 층간 소음까지 희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던 중 옆집 이웃이 드릴 게 있다며 무언가를 두고 간다. 확인하니 기업에서 기성품으로 나온 빵이다. 이윽고 희수는 정신을 차리고 마감을 준비하기보다 정성 들여 마음을 담은 케이크를 만든다. 영화는 창작하는 과정을 케이크 만드는 과정으로 은유한다. 그 과정이 어둡고 익살스럽지만 그 고통을 아는 관객들이라면 창작자들의 정성을 응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순미경

1996년 광주 출생. 동국대 영상대학원 재학 중. 독립영화 50gHD의 대표로 있으며 단편 <생태교란종>, <장동이 어디입니까>, <지붕 위의 질투>등을 연출하였다.

상영작 추천사

화려한 걸모습과는 달리 삶의 쓴 맛을 유머로 풀어낸 블랙코미디이다. 주인공 희수의 애처로운 케이크 도전은 웃음을 자아내며, 영화는 달콤한 케이크 속에 숨겨진 고독과 아이러니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낸다. 완성된 케이크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선사한다. 잔잔한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영화다.

김씨네클럽 박진선

창작은 케이크 한 조각 먹기만큼 간단히 마음을 먹기도, 때로는 정성 들여 케이크를 만들어내는 과정처럼 복잡하기도 하다. 비유를 들었지만 사실 케이크 만들기는 창작에 비하면 양반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창작이 인터넷 강의와 같이 정확한 과정과 영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원수 같은 이에게도 기꺼이 창작물을 보여줄 텐데 말이다. 창작자들이여 정신을 잠깐 다른 곳에 두고 오자, 본래 창작하기 전엔 실컷 딴짓을 해야 한다.

김씨네클럽 이용준

혼자

한국 | 2024 | 극 | 20min | DCP | Color | G

시각장애인인 선미는 친한 언니의 북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한다. 카페를 찾은 손님이 커피를 주문하려다 선미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편한 듯 나가버린다. 대학 졸업식 날 장애인 판정을 받은 선미는 엄마의 간섭이 심해지자 결국 가출 같은 독립을 한다. 공원 산책을 하며 언니와 벤치에 앉아 한가로이 샌드위치를 먹으며 선미는 건널목 건널 때 자신을 마중해 주는 초등학교 이야기를 나눈다. 선미는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다음날 또 손님이 들어오고 선미는 주문을 받아보려는데 상대는 말이 없다. 선미는 자신의 장애로 사람들을 내쫓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언어장애인이라고 말해준다.

이경호

1984년 출생.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후 광주에서 독립영화를 제작해왔다. 단편 <신기록>(2018), <해미를 찾아서>(2018), <행인>(2021), <고마운 사람>(2021)을 연출하였다.

상영작 추천사

사람은 어차피 혼자다. 주인공은 갑작스러운 장애 판정을 받고 엄마와 잦은 불화로 독립하게 되지만 장애를 향한 편견 가득한 주변 시선과 달리 혼자 살면서 불편한 건 모기 잡는 것일 뿐. 홀로 있다고 해서 혼자는 아니다. 우리는 혼자라고 착각하는 걸지도 모른다.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매서운 비바람을 막아주는 나무 같은 존재가 보이지 않게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다. 당연하게 보이고 들리는 것들에 새삼 감사하게 되는 영화다.

김씨네클럽 정현주

우리는 모두 예고없이 중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 영화는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된 선미가 선배 언니의 북카페에 일하게 되면서 혼자의 삶에서 사회적 삶으로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아름다움이 장착된 눈은 어떤 모습일까? 언어로 스케치하는 책임이 씌운 계속 리플레이 하고 싶어진다. 단순한 '보기' 너머 '같이 봄'에 마음이 간다면 이 매력적인 영화가 밝은 온기로 답해줄 것이다.

김씨네클럽 김선경



양림동 소녀

한국 | 2022 |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 29min | DCP | Color | G

진도에서 태어나 광주로 유학을 온 소녀가 성인이 되어 광주 5.18을 겪은 이야기, 노년이 되어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된 엄마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과거의 기억을 소녀의 꿈과 연결하여 애니메이션에 담았다.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은 소녀의 성장 이야기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현실과 꿈의 경계를 넘나들며 감정적 여운을 쌓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 이제는 할머니가 된 한 소녀의 삶의 여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광주의 기억을 꼭 기억하라고 말하는 듯하다.

임영희, 오재형

임영희 감독은 문학을 꿈꾸는 청소년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어 시민단체 활동과 '송백화'로 80년 오월광주 시민군을 도왔다. 50대에 뇌졸중을 겪은 뒤, 왼손으로 그림과 글을 담아 <양림동 소녀>를 출간했다.

오재형 감독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2015년부터 영상 작업을 시작했다. <피아노 프리즘>(2021), <덩어리>(2016), <블라인드 필름>(2016), <봄날>(2018) 등을 연출하였다.

상영작 추천사

정글 같은 기억 속에서 한 소녀는 자신의 꿈을 좇아 희망의 여정을 걷는다. 이 영화는 그녀의 20대를 통해 광주라는 공간 속에서 꿈과 현실이 교차하는 순간들을 다채로운 애니메이션과 함께 보여준다. 시간과 기억을 초월한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개인의 성장과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갈등이 어떻게 현재와 연결되는지 고민하게 만든다. 양림동의 소녀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복잡한 감정과 생생한 역사를 대변한다. 이 영화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오늘을 살피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시간여행으로 이끈다.

김씨네클럽 박재은

영화는 회색으로 치부되기 쉬운 산업화 시대의 무미건조한 풍경 대신, 광주에서 생동이 넘치는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보여준다. 양림동 소녀의 20대를 통해 광주라는 지역사회 내에서 얼마나 광범위한 활동이 벌어졌는가를, 개인의 삶이 사회와 연결되는 지점을 고민하게 한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연을 감추고 사는 이들이 많지 않을까?

김씨네클럽 박진선

REC ●



(재)김해문화관광재단과 함께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
김해문화관광재단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
ON AIR



김해문화관광재단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SCAN ME

시민기획단편선 ③ 부산단편선 : 바라던 바다

대구 참새씨네방앗간 × 부산독립영화제

부산독립영화제 추천사

올해 26회를 준비하는 부산독립영화제는 지난해 발표된 네 편의 단편영화로 관객을 맞습니다. 어린이, 야구, 만화적 상상력이 결합된 <슈퍼히어로>, 실패의 순간조차 솔직하게 기록으로 남긴 <누룩의 시간>, 인물들의 감정들을 세밀하게 바라보는 <흐린 영화>, 중심을 흔들리며 그 자체로 영화가 되는 <살이 살을 먹는다>. 저마다의 개성을 자유롭게 펼쳐내는 이 영화들을 통해 관객 여러분이 부산독립영화라는 넓고 깊은 세계에 접속할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김지연

대구 참새씨네방앗간 선정사

가는 날마다 구름이 자욱한 바다는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바다는 보지도 않고 어두운 하늘만 바라볼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은 바다였을까요? 맑은 하늘이었을까요? 언젠가, 그 바다 앞에 서서 눈을 감고 주변 소리에 귀 기울여 보았습니다. 바다의 소리는 바라던 바다를 그려주었고 쓸쓸함 대신 따스함을 남겨주었습니다. <바라던 바다>에서 보여드리는 부산독립영화제의 작품들에는 눈으로만 볼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습니다. 잘 들어봐주세요. 그 안의 어떤 것들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 참새씨네방앗간 임혜연



슈퍼 히어로

한국 | 2023 | 극 | 38min | DCP | Color | G

초등학교 '범'은 야구선수를 꿈꾸지만 야구에 영 소질이 없다. 그러다 우연히 자신의 우상이었던 롯데자이언츠 최동원 선수를 만나게 되고 그를 스승으로 삼아 야구의 기술을 하나씩 전수받게 된다. 범은 야구 못한다고 놀리던 친구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영화의 판타지적 설정과 배우들의 연기가 흥미로운 재기발랄한 영화다.

박범진

2001년 포항 출생. 부산에서 주로 활동 중이며 동서대학교 영화과에 재학 중이다. 단편영화 <영화학도의 주식 사용 설명서>, <약구르트>, <슈퍼히어로> 등을 연출했다.

시민기획단 소개

대구참새씨네방앗간

대구미디어센터의 커뮤니티시네마 기획에 참여한 3기 참새씨네방앗간입니다. 참새들이 방앗간에 모이듯, 대구 내에서 영화를 매개로 지역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11월 23일 시절인연을 주제로 한 영화제 개막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대구참새씨네방앗간 김경희

상영작 추천사

패배에 익숙해진 우리를 위한 '구원 투수' 같은 영화. 야구 선수를 꿈꾸지만 매번 친구와의 내기에서 지는 초등학교 범. 그런 범의 앞에 거짓말처럼 '무쇠팔' 최동원이 나타난다. 그의 코칭은 번번이 주저앉던 범을 일으킨다. 다시 일어나 던지는 범의 투구는 운동장을 넘어 우리의 심장에 꽂힌다. 주저앉는 범부터 배운 우리에게, 영화가 던지는 공의 궤적은 선명하다.

대구참새씨네방앗간 이우진



누룩의 시간

한국 | 2023 | 극 | 34min | DCP | Color | 15+

곡식이 썩지 않고 술이 되게 하는 누룩의 특성에 매료된 나는 울주에 있는 한 도가를 찾는다. 그곳에서 누룩을 만드는 아주머니들을 만나고 바쁜 농가의 삶 속에서 누룩 만드는 일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듣게 된다. 계속 미뤄지던 누룩 만드는 날이 드디어 정해지고, 모두 도가에 모이게 되는데 긴장한 탓인지 나는 그만 큰 실수를 하고 만다.

박민경

2023년 제25회 부산독립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했다. <누룩의 시간>을 통해 일상의 시간이 누룩을 만드는 사람들의 시간으로, 나아가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작가의 시간으로 치환되는 과정을 그렸다. 우리 삶의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영화를 만든다.

상영작 추천사

누룩의 시간은 한국 한마을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누룩을 만드는 과정을 독특한 시선으로 담아낸 단편 영화이다. 영화는 다큐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내레이션의 일정한 톤과 어조가 촬영에서 발생하는 여러 예상치 못한 상황들과 대비되며 묘한 긴장감을 만든다. 제작진과 등장 인물들과의 교류에서 한국의 '정'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작품이다.

대구 참새씨네방앗간 **이로운**

흐린 영화

한국 | 2023 | 극 | 27min | MOV | Color | 12+

독립영화 촬영장에서 연출부 막내인 '서정'은 조연 배우 '영화'를 탐탁잖아 한다.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서정'은 촬영이 끝난 후, 사무실에 치킨 배달을 온 '영화'를 발견하고, 둘은 촬영장 밖 각자의 이면을 발견하며 서로 가까워진다. '영화'의 촬영 마지막 날, '서정'은 조감독으로부터 '영화'의 촬영 분량이 삭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지만, 사실을 전달하기를 망설인다. 끝내 '서정'은 '영화'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영화'는 아쉽게 촬영을 끝마치게 된다. 다음날, '서정'은 '영화'에게 연기를 계속하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 촬영장에서 벗어나 '영화'를 향해 달린다

장서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생활을 관찰하고 시선의 의미를 더해 이야기를 풀어낸다. 2022년 다큐멘터리 <her hero>, 2023년 극영화 <흐린 영화>, 2023년 극영화 <잡기 놀이>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상영작 추천사

세상에는 따스한 시선으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존재한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것 진심을 담아 만든 작품은 절대 외면을 받지 않기에 위로의 힘을 아는 이들의 대화는 달콤하다. 서정과 영화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시간을 보며 우린 누군가를 더 이해하게 될 수 있을까. 흐린 영화는 각자의 사랑이 발현되는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대구 참새씨네방앗간 **이수연**



Imagine,
all the cinema,

살이 살을 먹는다

한국 | 2022 | 국 | 28min | DCP | Color | 12+

고향집에 돌아와 잠만 자던 지와는 과거에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한 친구 만식을 찾다가 마을 사람들의 일상과 마주하게 되고 더욱 공허함을 느낀다. 평화롭기만 한 마을에서 미끄러져 나온 지와는 결국 마을을 떠난다. 25회 부산독립영화제에서 관객심사단상과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전소영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김해에서 보냈다. 이후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에 입학해 영화를 사랑하게 되었다. 권태로운 시골 청년들의 모습을 표현한 <살이 살을 먹는다>로 2023년 부산독립영화제 25회 관객심사단상과 대상을 수상하였다.

상영작 추천사

우리는 살면서 각자가 선택한 삶에 대해 열심히 피력하지 않아도 존중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영화는 남아있는 자에게도 떠나는 자에게도 본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늘 남에게 나를 증명해야 하는 삶의 굴레에 지쳐 있다면 이전 그러지 않아도 괜찮으니 당신의 길을 가라고 잔잔한 응원을 건네는 이 영화를 보길 바란다.

대구 참새씨네방앗간 김경희

Imagine,
all the cinematic
people...

시민기획단편선 ④ 강원단편선 : 악수할까요?

김씨네클럽 × 원주옥상영화제

원주옥상영화제 추천사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김해시민영화제에서 강원도 작품을 선보일 수 있어 기쁩니다. 2024원주옥상영화제에서 상영했던 신작들로 원주 시민들이 직접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강원단편선 공모 결과, 60편이라는 역대 가장 많은 출품률을 달성함으로써 양질의 작품과 만나 더 고무적이었습니다.

원주에 이어 김해 시민들이 엄선한 네 작품엔 공통으로 장벽과 마주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정체성과 꿈, 부재와 장애로 대표되는 나의 그림자에 정면으로 응시하는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시련을 돌파할 우리를 상상하면서 말이죠.

원주옥상영화제 프로그램팀장 이효정

김씨네클럽 선정사

원주옥상영화제와 김씨네 인연은 특별합니다.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영화축제는 점이 닳았고 영화제에서 첫 인연을 맺은 지역이 원주여서 더 그러합니다. 이번에 받은 '강원단편선' 영화들이 모두 좋아서 네 편만 선정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덟 편의 영화 중 선정한 네 편의 영화는 나와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벽, 상처, 편견, 방향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 마주하고 맞서야 할 무언가를 보여주는 영화들을 골랐습니다. 네 편의 모든 영화에는 나름의 악수가 존재합니다. 딸과 과거의 아빠, 나와 다른 자아, 귀신과 수험생, 청각 장애인과 가상의 시는 마지막엔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습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악수하기 위해 수줍게 손을 내미는 재미있고 따뜻한 영화들을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씨네클럽 이지혜



8월의 크리스마스

한국 | 2023 | 극 | 30min | DCP | Color | G

은수는 결혼식을 앞두고 불현듯 강릉으로 향한다. 다섯 살의 기억을 붙들고 오래전에 가족을 떠난 아빠를 찾아 나선 것이다. 길을 헤매다 기차길 옆에서 우연히 잡아 탄 택시는 정체가 묘연하다. 8월 뜨거운 한여름 밤에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여름은 겨울로 바뀐다. 낮선 장소, 낯선 시간대에서 판타지처럼 시작된 둘의 여정. 은수는 그와의 특별한 하루를 통해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과 기억을 마주한다.

이가홍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영화과 졸업 후 전문가 극영화시나리오를 전공 중이다. <그 새끼를 죽였어야 했는데> (2018), <광장>(2021), <네가 사랑한 것들을 기억할게> (2021)을 연출했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2023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2023년 히로시마 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다.

상영작 추천사

인생에 새로운 반환점이 될 순간이 오면 유독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그 반환점이 결혼식이라면, 그 대상이 가족이라면 더 그럴 것이다. 아픈 가시처럼 내면 깊은 곳에서 누르고 있던 감정들은 어느 순간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결혼을 앞둔 딸이 오래전 가족을 떠난 아빠를 찾아 강릉 어렸을 적 동네를 무작정 찾아 헤매는 여정은 마음의 지도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딸의 마음과 대조적으로 카메라에 담긴 강릉 곳곳의 풍경은 너무나 아름답고 8월의 여름이 갑자기 겨울로 바뀌는 판타지적 설정에서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대면한 딸의 눈빛은 애잔하다. 그토록 기다렸고 알고 싶었던 누군가의 진심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안도하게 되는 그 마음을 카메라에 잘 담아냈다. 딸인 줄 모르고 딸에게 건네는 아빠의 마지막 말과 임종 전 마지막으로 만난 아빠의 택시에 살포시 놓고 온 청첩장. 한여름에 확인한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딸은 이제 편안히 인생의 다른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씨네클럽 이지혜



파놉티콘

한국 | 2024 | 애니메이션 | 15min | MOV | Color | G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열망과 이를 가로막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주인공의 마음속에서 충돌한다. 그 결과 두 개로 나뉜 자아는 쇠사슬에 묶인 채 서로 맞서며 감옥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감옥은 '파놉티콘'이라는 원통형 구조로 갇힌 사람들은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해야만 탈출할 수 있다. 작품을 통해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성공하면 환호가, 실패하면 추락이 기다리고 있다.

우혜민

2002년 부여 출생, 2022년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애니메이션스쿨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다. <그 무렵 우리는> (2019) 제작에 참여했고, <가짜면접>(2019), <연주의 숲>(2020), <파놉티콘>(2024)을 감독했다. <파놉티콘>은 국내외 영화제에서 상영하였으며, 2024년 3월 로마 프리즈마 필름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김씨네클럽 이용준

상영작 추천사

공을 들여 만든 나의 창작품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준다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 나를 모르는 이들이 나를 쉽게 판단할 수도 있으며 나를 아는 이들에게는 나의 감춰진 모습을 꿰뚫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작이란 본래 일기가 아닌 이상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닌가? 영화에는 일단 몸을 내던지자는 주인공과 자신을 꽂꽂 감춘 채 준비만 하는 주인공이 둘 나온다. 창작하는 과정에서 이 둘 사이의 근사한 비율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 과정에 묻혀 완벽함을 찾고 또 찾다, 언젠가는 작품을 가지고 세상에 몸을 내던지게 된다. 이후에는? 날 판단하고 재단할 것 같은 세상은 걱정과 달리 어둡지만 꽤 편하다. 지금도 창작품을 세상에 내보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예술가를 응원한다. 이미 작품을 세상에 내보인 예술가라면 자기 작품에 자부심을 가지길 바란다. 사실 다른 이들이 내 작품을 판단하면 좀 어떤가. 창작의 결과에 굴욕은 없다.

김씨네클럽 이용준

꿈은 이루어진다

한국 | 2023 | 극 | 24min | DCP | Color | G

전교 꼴찌 은아는 어느 날, 친구들이 전교 1등 귀신에 대한 괴담을 수군대는 것을 듣게 된다. 엄마 미숙의 광적인 교육열로 감금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은아는 엄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귀신과의 협상을 통해 빙의하게 된다. 귀신의 도움으로 딸이 전교 1등이 된 것을 전혀 모르는 미숙이 기쁨을 만끽하기도 잠시, 밤마다 혼잣말을 하고 어딘가 달라진 딸의 모습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데...

남궁연이

강릉에서 자랐고 정동진독립영화제를 통해 영화를 사랑하는 친구들과 스승을 만나 영화감독의 꿈을 키운 '정동진 키드'다. 강원영화학교 극영화 제작 워크숍 1기 출신으로 <꿈은 이루어진다>는 2024년 정동진영화제 관객상인 뽕그랑동전상을 받았다. 그외 연출작으로 <초행길> (2019), <엄마가 임신했다>(2023)가 있다.

김씨네클럽 정희숙

상영작 추천사

입시전쟁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 부모들의 학구열은 열기가 지나쳐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그 래서인지 학창 시절 학교에 전해지는 으스스한 괴담 하나쯤은 들었던 기억이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전교 2등이 죽인 전교 1등의 원혼이 밤마다 학교를 떠돈다는 오싹하고 끔찍한 학교 괴담을 소재로 한 스릴러물이지만 공포스럽지 않다. 귀신이 나오는 영화를 이렇게 유쾌하게 본 적이 없다. 배우들의 익살스러운 표정 연기, 섬세한 의상, 장면마다 엿보이는 감독의 기발한 유희, 반전의 결말까지 영화를 보는 동안 연신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유희와 유머 속에 톡톡 건드려주는 시사점도 빠트릴 수 없다. 특히 은아가 현실의 사람이 아닌 전교 1등 귀신과 소통하는 장면은 촉은하고 안쓰럽기까지 하다. 지금껏 공포영화에서 보아 온 귀신들의 존재는 대부분 극한의 공포 대상이었다. 하지만 과연 귀신이 사람보다 무서워야 하는 존재일까? 무서움 때문에 여고괴담 시리즈를 보지 못했다면 여고괴담 코믹 버전으로 추천한다.

김씨네클럽 정희숙



金枝玉葉

My Own Private Cinema

미디어

한국 | 2023 | 극 | 25min | DCP | Color | 12

2027년, 청각장애를 가진 대학생 가을에게 교수는 팀으로 진행되는 졸업 작품 참여 여부를 묻는다. 배려하는 듯한 교수의 질문에 가을은 고민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을은 주변에서 자주 언급하는 AI 앱 '미디어'를 설치하고 앱 속 남자 캐릭터와 자막 기능을 통해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위안을 얻는다.

김소희, 전도희

김소희 감독은 천안에서 태어났고 송실대학교를 졸업했다. <해로>(2020), <소년>(2021)의 작품이 있다. <미디어>에서 공동 연출과 편집을 담당했다.

전도희 감독은 원주에서 태어났고 송실대학교를 졸업했다. <미디어>에서 공동연출과 각본, 주인공 가을을 연기했다.

<미디어>는 2023년 부산국제영화제 선재상/왓חד 단편상, 2024년 경상북도 국제시 메타버스영화제 대상을 받았다.

상영작 추천사

영화 <미디어>는 장애를 넘어 인간 사이의 소통과 이해를 다루는 따뜻한 작품이다. 가을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I.와 소통하는 방식은 가벼우면서도 진지해 인간 관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는 선한 의도가 때로는 불필요한 배려가 될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 영화 속 교수님이 가을을 배려하려다 오히려 소외시키는 장면은 이를 잘 보여준다. 반면 A.I.와 가을은 서로 편견 없이 소통하고 배우는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교감은 영화 속 가을이 얼마나 친구와 소통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우리가 어릴 적 친구와 소통할 때처럼 자연스럽게 진솔하다.

<미디어>는 관객에게 편견 없는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때때로 질타할 때가 있다. 영화는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필요한 말을 차분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또한, 타인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스럽고 따뜻한 울림을 줄 것이다.

김씨네클럽 정동준

영화 콘텐츠 스토어

Poster
OST Vinyl
Book
Goods

금지옥엽 을지로 × 모극장

☎ cherish_storage
T. 02-2273-0220
E. cherishstorage@gmail.com
A. 서울 중구 청계천로 160
세운창계상가 3층 데크 가열 312호

금지옥엽 전주 × 무명씨네

☎ cherish_storage.noname
T. 010-5808-8159
E. cherishstorage@gmail.com
A.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96 2층

금지옥엽 부산 × 모퉁이극장

☎ cherish_storage.corners
T. 051-465-1895
E. cornertheater2016@gmail.com
A.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13
BNK부산은행아트시네마 3층

시민기획단편선 ⑤ 경남단편선 :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들에 대하여 김씨네클럽 × 경남단편선

경남영화 추천사

영화제가 시작된 2022년부터 지역에서 제작하고 있는 다양한 영화들과 경남의 영화창작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작품들을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올해는 경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감독들의 작품에 주목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창작 현장에서도 곳곳이 영화로 자신과 경남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김해영상미디어센터 **전현주**

김씨네클럽 추천사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수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정성껏 담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남의 말투로, 경남의 풍경으로 경남만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이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세요 이 속에서 발견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묵묵히 해 나가는 창작자들의 작품 속에서 우리를 기억해내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해 시민기획단 **김씨네클럽**



순간! 화원

한국 | 2023 | 드라마 | 14min | DCP | Color | G

직업전문학교에서 조정 과정을 배우던 홍주는 같은 수업을 듣는 주형을 만난다. 둘은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이튿날 주형이 사망한다. 홍주는 주형의 주변 인물들에 의해 주형의 살아생전 모습을 알게 된다. 홍주는 자신이 조금밖에 보지 못한 주형의 다른 모습을 알게 된다.

이용준

1996년생. 신라대학교 문예창작비평학과를 졸업하였다. 2023년 경남 영화 아카데미에서 <순간! 화원>의 시나리오와 연출을 담당했다. <순간! 화원>은 김해생명과 학교등학교와 김해문화의전당 등 모두 김해를 배경으로 촬영이 진행됐다.

김해영상미디어센터 소개

김해영상미디어센터

매달 김해영상미디어센터 시청각실 씨네마루에서 한 달에 한 번 영화를 영화를 함께 봅니다. 지역에서 만나기 힘든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영화감상 나눔과 함께 다채로운 영화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영작 추천사

연애가 끝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기대감과 환상의 세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알았던 그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는 원래부터 그랬던 걸까? 나에게만 특별했던 걸까? 배신감과 속았다는 부끄러움이 밀물처럼 밀려오지만, 그래도 괜찮다. 연애니까... 속았다고 억울해 하는 것보다 해프닝에 웃어 넘기자. 그게 다음 연애를 잘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연애도, 영화도 항상 어렵지 않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순간 화원처럼.

김해영상미디어센터 **전현주**



계약만료

한국 | 2024 | 드라마 | 26min | DCP | Color | 12+

은미는 남편 대호, 대학생 큰딸 시은과 늦둥이 딸 시아 두 딸을 키우며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보통의 엄마이다. 은미와 대호 가족에게는 남다른 사연이 있는데 위탁 아동으로 데려온 늦둥이 딸 시아가 있다. 갓난 아기 때 데려온 시아는 어느덧 아홉 살이 되었다. 시아의 친모 가영은 시아와 함께 하게 될 행복한 시간만을 기다리며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딸 시아를 보내야 하는 위탁엄마 은미와 딸을 찾아야 하는 친엄마 가영의 이야기이다. 과연 두 엄마는 모두 행복할 수 있을까?

정보경

청년기획자이자 영화감독이다. 미디어랩 독감경보를 운영하고 있다. 독립장편영화 <오장군의 발톱>에 배급책임이자 단편영화 <소금사막 The beginning> 연출에 참여했다. 창원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미디어교육과 영화를 만들고 있다.

상영작 추천사

가정위탁을 소재로 제작된 계약만료는 마산에서 촬영되고 제작되었다. 지역 청년 영화단체 독감경보에서 제작된 이 영화는 어렵지만 의미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자신들의 힘듦보다는 사회의 문제에 귀기울이고 있다. 가정위탁이라는 소재로 자립 청년의 어려움, 위탁모의 고민 등을 표현하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 번쯤 고민하고 되새겨볼만한 이 주제를 따뜻한 관심과 시선으로 챙겨 봤으면 한다.

김해영상미디어센터 **전현주**

주제가 선명한 영화다. 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가정위탁 제도를 알려주면서 위탁모와 친모의 아이에 대한 복잡미묘한 마음과 녹록지 않은 현실 상황을 담아낸 영화다. 두 엄마 모두에게 응원 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김해 시민기획단 **김씨네클럽**

우도마을 다이어리

한국 | 2021 | 다큐멘터리 | 21min | DCP | Color | G

“우리는 섬에서 태어나도 언어 자체가 다 시라!” 한반도 남쪽 바다 통영시 옥지면, 인구 20명이 사는 작은 섬 우도마을,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육지의 삶과 달리, 섬마을 사람들은 좋으나 싫으나 더불어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열네 명의 우도 주민이 전하는, 섬의 삶.

유희늘샘

남쪽바다 미륵섬에서 유년기를, 지리산 골짜기 대안학교에서 청소년기를, 서울의지육고에서 청년기를 살았다.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생활놀이장터 놀장, 로드스콜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섬마을 영화제에서 일했다.

세계일주 방랑다큐 3부작 <남한기행>(2011), <늘샘천축국편>(2013), <지구별 방랑자>(2021)를 만들었다. 그 외 <편의점 야간 파트타임의 고통>(2009), <용산 철거민 구술사>(2011), <통영가족의 시베리아 횡단기>(2017), <듣는 건 너의 책임>(2024)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상영작 추천사

바다였지만 바다가 없는 김해에서 섬마을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딜가나 객지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여전히 객지것들과 원주민의 사연은 바다를 건너 아주 아주 조그마한 섬에서도 이어진다. 그리고 보면 같등은 필연, 존재했던 자들과 들어온 자의 설움은 끝이 나지 않은 이야기인가 보다. 저 멀리 통영의 작은 섬 우도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시의 삶과 많이 닮아 있다. 도시에서 벗어나다고 해서 시간이 생겨나지 않는다. 일상이 바쁜 것은 도시나 섬이나 매 한가지이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다면 <우도마을 다이어리>를 함께 봐 주시라.. 통영 사투리로 가득 찬 이 영화에서 그 답을 알아 줄 것 같다.

김해영상미디어센터 **전현주**

시민기획단편선 ⑥ 대구단편선 : 우리 일상에 관찰 카메라가 있다면 부산 관객문화교실 10기 × 대구단편영화제

대구단편영화제 추천사

올해 25주년을 맞은 대구단편영화제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매력의 작품들로 가득했습니다. 영화제를 빛낸 작품들 중 김해시민영화제 시민기획단께서 세심한 안목으로 선정해주신, 대구 단편 신작 세 편을 소개합니다. 섬세하고 사려깊은 박재현 감독의 〈모르게〉, 다정하고 따뜻한 김은영 · 황영 · 전상진 감독의 〈야식 금지클럽〉, 유쾌하고 솔직한 이한오 감독의 〈헤어 나올 수 없는〉을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뜨겁고 활발한 대구 단편영화의 오늘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단편영화제 프로그래머팀장 **최은규**

부산 관객문화교실 10기 선정사

우리 일상에 집집마다 들여다 보는 관찰 카메라가 있다면 기록되었을 법한 생활 스토리들이 펼쳐지는 영화제입니다. 이혼한 부모와 딸의 서로가 모르게 사랑하는 법, 야식의 유혹과 싸우는 비장한 여자들의 코믹한 이야기, 탈모인의 헤어 나올 수 없는 위태한 사랑 등 여러 사람들의 에피소드들을 보면서 왠지 내 이야기 같고 내가 겪었을 것 같은 친근감가는 영화들입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이야기, 누구나 고민했을 이야기들을 통해 다시금 현재 나와 가족 및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산 관객문화교실 10기 **이성진**



모르게

한국 | 2024 | 극 | 37min | DCP | Color | G

중학교 2학년 소은은 이젠 엄마와 같이 산다. 그래도 소은은 아빠와의 사이도 나쁘지 않다. 학원을 운영하는 아빠는 어느 날 소은에게 이제 고등학교 준비도 해야 하니 전일제 학원으로 옮기길 권유한다. 소은은 아빠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음을 알게 된다. 아빠의 여자친구는 현서라는 이름의 영어학원 선생님이야. 소은은 아빠가 자신에게서 거리를 두는 것 같다. 소은은 현서의 학원에 찾아가 당돌하게 학원에 등록한다. 현서는 어떤 사람일까? 소은은 마음이 복잡하다. 다시 아빠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

박재현

대구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으며 각본, 연출 작업을 하고 있다. 대구영화학교 1기로 촬영을 전공하였으며, 현재까지 세 편의 단편영화를 연출하였다. 영화 〈모르게〉로 25회 대구단편영화제 애플시네마 대상과 관객상을 받았다.

시민기획단 소개

부산 관객문화교실 10기

영화를 좋아하는 부산 사람들이 만나서 활동하는 문화교실입니다. 하지만 영화 외에 다른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월요일 저녁에 남포동 모퉁이극장에 모여서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관람하고 감상한 소감을 나눕니다.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영화를 보고 싶고 우리가 만드는 소박한 영화제를 꾸꾸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산 관객문화교실 10기 **이동주**

상영작 추천사

〈모르게〉는 이혼 가정에서 살아가는 중학생. 소은의 이야기를 다룬다. 영화는 아이가 경험하는 반으로 찢어진 세계. 이혼의 결과를 섬세하게 그려냈다. 그 속에서 파생되는 말하지 못할 말들. 모르게 덮어둔다. 숨기는 것은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작은 배려이지만, 드러났을 때는 더 큰 상처로 받기도 한다. 우리는 진실의 장독대를 오래 묵히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부산 관객문화교실 10기 **김찬우**



야식금지클럽

한국 | 2024 | 극 | 21min | DCP | Color | G

지유는 남자친구와의 이별 이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채원은 빙빙이라는 이름의 반려견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다. 혜영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마감의 굴레로 고통받는다. 이들이 스스로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야식이다. 지유, 채원, 혜영은 각각의 사정에 따라 즐겨왔던 야식을 멈추고자 '야식 금지 클럽'을 결성한다. 제법 체계를 갖춘 조직인지 단체 복도 차려입고 명상과 운동을 통해 유혹을 건설적으로 돌파하려는 듯 보인다. 어느덧 이들의 수행은 99일째, 이제 100일 고지가 머지않았다.

김은영, 전상진, 황영

김은영 감독은 영화, 출판 등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다. <평야의 댄서>(2020), <더 납작 엎드릴게요>(2023) 등을 연출했다.

전상진 감독은 대구에서 촬영과 연출을 병행 중이다. <더 납작 엎드릴게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사랑은 할 수 있겠지> 등을 촬영했다.

황영 감독은 대구에서 영화 워크숍을 통해 영화를 배웠다. <평야의 댄서>(2020), <눈을 감고 크게 숨 쉬어>(2022) 등을 연출했다.

상영작 추천사

야식을 대하는 현대인의 갈등에 격하게 공감하며 야식을 같이 참아내는 '클럽'을 만든다는 놀라운 아이디어에 감탄하다가 남자 친구의 등장으로 반전이 일어나 이거 콩트인가 싶더니 고구마의 등장으로 만화같이 변신하는 영화다. 무심코 과자 먹으며 보다가 웃느라 먹는 걸 멈추게 하는 영화. 나도 야식금지클럽에 가입하고 싶어진다.

부산 관객문화교실 10기 이성전

배가 허한건 아닌데 배를 채우려는 이 아이러니. 실은 이 아이러니함은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하다. "그래도 나는 노력이란걸 하고있어" 지유의 말처럼 우리는 공허함을 이기고 있는게 아닌 이기려 노력하고 있다 그거면 됐다. 나를 위한 시간이 오로지 늦은 밤, 야식을 먹는 시간이라면 이 영화도 늦은 밤, 야식으로 먹어봤으면 한다. 앞으로 내 야식 추천 메뉴는 피자, 라면, 과자가 아닌 이 영화다.

부산 관객문화교실 10기 권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한국 | 2023 | 극 | 29min | DCP | Color | 15+

여자 친구 숙희에게 탈모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항상 가발을 쓰고 만나는 영모. 그 사실을 여러 차례 고백하려 하지만 관계가 잘못될 것 같은 트라우마로 인해 매번 망설인다. 다코야키의 맨들맨들한 것이 귀엽다고 말하는 숙희의 말이 위로되어 자취방으로 초대하는데... 계속해서 탈모를 고백할 기회를 엿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밤을 보낸다. 다음날, 드라이기를 찾는 숙희를 자격자심에 잠옷 바람으로 집에서 내쫓으면서 둘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지만 한다.

이한오

1994년생. 서울예술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영화학교 4기로 촬영을 전공했다. <운동회날>(2022), <못>(2022), <저주 사물>(2024) 등을 촬영했고, 그의 첫 연출작인 <헤어 나올 수 없는>(2023)에서 감독, 촬영, 각본, 사운드 믹싱을 했다.

상영작 추천사

연인에게 숨기고 싶은 것 아니 이미 숨기고 있는 것 누구에게나 하나씩 있을 법하다 영모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숨기고 있는 비밀에서 헤어 나와야 비로소 우리는 서로에게 '헤어 나올 수 없는' 사이가 되니까. 내 비밀을 나의 연인에게 말해야 비로소 우리는 그런 사이가 되니까.

부산 관객문화교실 10기 권에서

다코야키, 문어숙회로 주인공의 핸디캡을 표현한 비장하지만 재밌는 영화입니다. 마지막 서로를 위한 헤어드라이어로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에서 비로소 헤어가 나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제목에서 중의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탈모인들 이 영화를 보시고 자신감 있게 사랑을 고백하세요.

부산 관객문화교실 10기 이성전

특별상영 영사영

올해 특별상영 프로그램은 경남에서 촬영된 독립장편 <장손> 상영, <딸에 대하여>를 연출한 '이미랑 감독특별전', 앞으로 영화계를 이끌어갈 신인배우들의 얼굴을 미리 만날 수 있는 '배우특별전'으로 구성되었다. 이외에서 김성철 독립영화 <장손>과 미래의 가능성을 품은 신인 배우와의 만남, 이미랑 감독의 단편과의 만남은 영화제를 찾은 관객에게 의미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특별상영① 장손

장손 추천사

3대가 함께 사는 풍경을 상상 할 수 있을까요? 과거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시대는 정말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여성의 사회활동은 양육자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있지만 동거인, 가족으로서의 일상과 생활을 공유하는 가족의 개념과는 다를 것입니다. 노동의 시간조차 함께 공유하며 기쁨과 슬픔, 분노와 갈등을 앓고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의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한 것이 지금의 세대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가족이란 함께 있어서 힘들고 또 함께 해서 고마운 존재입니다. 우리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의미에서 영화 장손을 함께 바라 보았으면 합니다. *본 상영작은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 공동체 상영회로 진행됩니다.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



장손

한국 | 2024 | 다큐멘터리 | 121min | DCP | Color | 12

영화 <장손>은 경북의 시골 마을, 제삿날 모인 3대 대가족이 두부 공장 가업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이야기다. 집안의 장손이 두부 공장 가업을 잇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그동안 묵혔던 갈등이 폭발하고 70년 묵은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예기치 못한 이별은 다른 국면을 가져오고 가족의 상처, 관계, 비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궁금한 영화다. 연출, 촬영, 각본의 완성도가 높고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이 영화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3관왕을 수상. 올해 주목할 만한 독립영화 중 하나이다.

오정민

1989년생. 초기 독립영화 제작을 통해 자신만의 영화 색깔을 확립한 감독.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탐구하고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는 사회비판적 위트와 온기가 담겨 있는 작품이 많다. 작품으로는 <연지>(2016), <백일>(2018), <성인식>(2018) 등이 있다.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 소개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은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신개념 어린이 영상문화공간으로 2010년 개관 하였습니다. 개관 이래 다양한 어린이 미디어 교육과 영화 상영,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남의 어린이,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디어 세상의 길잡이로 남고 싶습니다.

상영작 추천사

영화의 예고편은 매력적이다. 아주 흔히 예고편과 본편이 너무 달라 당황한 영화들이 종종 있었다. 장손의 예고편을 본 순간 드는 생각은 물음표였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영화인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음악이 심상치 않다. 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음악은 왜? 궁금하다. 줄거리와 음악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3대가 알콩달콩 살아가는 이야기는 따뜻할 것 같은데, 느껴지는 이 불안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그래서 예고편만 보고 함께 보길 추천한다. 아니, 제안을 해본다. 함께 보자고, 어떤 영화인지. 보기 전 설레임도 영화를 즐기는 시간이다. 설레임은 마음을 가지고 11.2일을 기다리고 애드름마당에서 이 영화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만나보고 싶다.

김해영상미디어센터 **전현주**

특별상영②

우리에 대하여 : 이미랑 감독전

우리에 대하여 : 이미랑 감독전 추천사

지난 9월 4일 개봉한 <딸에 대하여>는 관객 2만 명을 넘어서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김해시민영화제 시민기획단 김씨네클럽에서도 여러 차례 이 영화를 관람하며 이야기 나눈 바 있습니다. 감독의 섬세한 연출력은 목직할 수 있는 주제를 우리의 일상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게 담아내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를 통해 감독의 이전 작품에 대한 궁금증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특별상영은 올해 8월, 인디스토리과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가 주최한 '그녀에 대하여: 이미랑 감독전'에서 상영된 단편 세 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미랑 감독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삶을 하나의 틀로 규정하기보다는 반복적인 감상 속에서 각자의 시선을 형성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작품을 선보입니다. 20년간 이어진 감독의 다정하고 섬세한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 그녀의 작품이 전달하는 깊은 감정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씨네클럽 정동준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한국 | 2005 | 극영화 | 15min | DCP | Color | 15

지하철을 탄 기남은 낯선 외국인 여자에게서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라는 전단지 받는다. 기남은 아버지를 재혼시키려고 베트남 여성 아미나에게 연락한다. 그러나 결국 서로에게 정이 들어가는 둘. 경제적인 이유로 국제결혼 시장에서 희생되는 이주여성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면서도 코미디와 로맨스를 결합해 깊은 여운을 남긴다.

이미랑

서울예술대학교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문예창작과 영화를 공부했다. 단편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2005), <목욕>(2007), <춘정>(2013) 연출을 통해 이주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주목한 작업을 이어왔다. 이창동 감독 <시>(2010), 장률 감독 <춘몽>(2016) 스크립터로 참여하였고 <딸에 대하여>는 첫 장편 영화다.

상영작 추천사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의 목적은 뭘까. 우리는 결혼이란 제도 속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사람마다 살아가는 가치와 목적은 다르다. 주인공 기남의 아버지처럼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결혼을 택하는 사람도 있고 베트남에서 이주 온 아미나처럼 아픈 동생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

새어머니를 찾기 위한 기남과 아미나와의 첫 만남. 누가 보면 새로 시작하는 연인처럼 보이는 투샷이 마치 청춘영화의 한 장면 같다. 결혼의 목적이 확연히 다른 두 사람 사이에 연민인지 사랑인지 모를 감정이 싹튼다. 기남과 아미나, 이 젊은 청춘 커플이 애뜻하게 느껴진다. 자연스럽게 나는 둘을 응원한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결혼과 생존을 위한 결혼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을 위한 원초적 결혼이 진짜 결혼이 아닐까.

김씨네클럽 정현주



목욕

한국 | 2007 | 극영화 | 19min | DCP | Color | 12

찬물만 나오는 욕실에서 짜증 내는 동생, 원하는 치킨을 주문하지 않았다는 투덜대는 언니, 그리고 시큰둥한 엄마. 그들 사이로 흐르는 은밀한 갈등. 이 영화는 먼 동네로 자매가 목욕을 나서면서 가족 사이의 서먹한 감정과 갈등이 화해로 이르는 과정을 섬세하고 따뜻하게 보여준다. 가족 안에서만 가능한 투박한 배려, 그 서투른 따뜻함이 그림다.

이미랑

서울예술대학과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문예창작과 영화를 공부했다. 단편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2005), <목욕>(2007), <춘정>(2013) 연출을 통해 이주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주목한 작업을 이어왔다. 이창동 감독 <시>(2010), 장률 감독 <춘몽>(2016) 스크립터로 참여하였고 <딸에 대하여>는 첫 장편 영화다.

상영작 추천사

가족이란 언제나 살갑고 든든하지만은 않다. 때로는 가장 어색하고 성가신 존재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가족을 떠올리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이해를 찾아간다. 목욕탕 속에서 마주한 두 자매는 차가운 공기가 수증기처럼 녹아가듯 그들이 숨겨온 미묘한 감정들이 서서히 드러난다.

이 영화는 일상 속 작은 공간에서 가족 간의 관계를 깊이 조명하며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준다. 이미랑 감독은 성 정체성이나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배제한 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툰 사랑과 미숙한 이해를 차분하게 풀어낸 흘러가는 물처럼 씻겨나가는 감정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마주하며 묻는다. “별일 없는 안녕한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가장 가깝고도 먼 존재인 가족.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김씨네클럽 박재은

춘정

한국 | 2013 | 극영화 | 28min | DCP | Color | 12

“아... 왜, 사람도 꽃처럼 저마다 색깔이 있잖아요.” 밝고 순수한 재중동포 춘정은 한국에서 잘 살고 싶다. 친구 소개로 발돋움하게 된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일도 하고 정도 쌓으며 이어가던 평온한 나날은 어느 날 들이닥친 경찰들로 인해 예정된 위태로움을 맞게 된다.

이미랑

서울예술대학과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문예창작과 영화를 공부했다. 단편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2005), <목욕>(2007), <춘정>(2013) 연출을 통해 이주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주목한 작업을 이어왔다. 이창동 감독 <시>(2010), 장률 감독 <춘몽>(2016) 스크립터로 참여하였고 <딸에 대하여>는 첫 장편 영화다.

상영작 추천사

사람도 꽃처럼 저마다 색깔이 있다면늘거리는 레이스와 스카프를 휘두른 재중동포 춘정의 색은 이름처럼 봄의 싱그러운 초록일 것이다. 춘정은 순진한 시골 노인에게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 업체에 취직하게 되지만 삶의 터전으로 생각한 곳이기에 열심히 일을 배우고 동료들과 정도 나누며 잘 살아가고 싶다. 영화는 우리의 관심이 덜한 이주여성이자 보이스피싱 업체에 있는 그들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영화의중반, 젖은 날개를 펴지 못하고 버둥거리는 나비를 야기 다루듯 정성껏 입김을 불어 날려 보내는 춘정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누군가가 조금 열어준 차창으로 불어오는 바람과 햇볕은 춘정의 애환에 공감해 주는 부드러운 손길 같다. 엔딩크레딧까지 세 가지 초록색 버전 같은 주제곡은 비치는 톤이 다르기에 세심하게 들어보기를 권한다. 이방인이 아닌 삶을 살고 싶은 춘정의 아픔과 슬픔을 아련하게 보여주니까.

김씨네클럽 김선경

특별상영③

시를 담은 얼굴들: 배우특별전

낮띠틈필름 추천사

작품 속 배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얼굴과 몸짓에 시가 담겨 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눈빛 속에는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고, 상황과 감정에 맞춰 움직이는 몸짓은 은유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밖으로 나오는 대사는 시를 낭송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김최용준, 시혜지, 장요훈, 전도희 배우와 함께 스크린을 통해 시를 경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낮띠틈필름 **최아름**



김최용준 서사가 담긴 눈빛, 김최용준의 얼굴

점점 더 깊어지는 눈빛과 자신만의 에너지, 분위기로 관객들의 눈길을 멈추게 하는 김최용준 배우.

[필모]

장편 <정순> <라임크라임> <비치온더비치> <한공주> 외 다수

단편 <미래의 집> <잠이 오기 전에>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너의 기억> <아이스> 외 다수

그 외 매체: '일당백집사' 외 / 공연: '유월의 달빛', '하프베이스먼트' 외



시혜지 기초를 담은 태도, 시혜지의 얼굴

조치원 '시네마다방'의 대표, 영화 <빛가리> 제작자, 배우, 문화기획자 등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랑스런 무비스타 시혜지.

[필모]

장편 <빛가리>

단편 <무비스타 시혜지>



장요훈 운율을 담은 몸짓, 장요훈의 얼굴

개성 있는 표정과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작품의 매력을 배가시키는, 흥내 낼 수 없는 에너지를 지닌 장요훈 배우.

[필모]

장편 <탈주> 외

단편 <졸음쉼터> <Hiss> <하부구조의 친구들> <영화전대 춘화레인지> <스톤하트> <첫꼭지 3차 대전> 외 다수

그 외 매체: '강매강', 'LTNS' 등 / 공연: '구름을 타고 가는 소녀들', '오월의 하루' 등 M/V: 알레프 '아무도 그대를 바라지 않는', '자유'



전도희 짙은 울림을 담은 표정, 전도희의 얼굴

연출, 각본, 배우를 모두 소화하며 이렇게 섬세하게 작품을 끌어갈 수 있을까? 계속 보고 싶은 울림과 여운을 지닌 전도희 배우.

[필모]

단편 <미디어> <해비벌스데이> <썬> <희지의 세계> <엄마가 결혼한다> <꽃들> 외



졸음쉼터

한국 | 2024 | 극영화 | 13min | DCP | Color | G

늦은 밤, 한적한 졸음쉼터에 한 무용수와 운전자가 머무른다. 운전자는 차에서 잠을 청하지만 실패한다. 잠에 들지 못하는 운전자와 춤을 추는 무용수는 자판기 앞에서 대화를 나눈다.

정혜운

영화 전공으로 재학 중이다. 장면 속 순간순간의 호흡과 공백을 중요시한다. 특별하고 고유한 리듬을 가진 영화를 만들고자 한다. <졸음쉼터> (2024)는 연출한 첫 번째 영화다.

상영작 추천사

졸음쉼터에서 만난 무용수와 운전사가 있다. 한 사람은 춤을 계속 추고 있고 한 사람은 차 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고 한다. 그러다 자판기 앞에서 둘은 마주친다. 고장 난 자판기 앞에서 커피 아닌 커피를 마시면서 어긋나는 시선과 대화를 나눈다. 잠시 쉬려고 들른 시간이 오래 이어진다. 잃어버렸던 것은 진정 열쇠였을까? 잠이었을까? 살다 보면 원치 않아도 잠시 쉬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어떤 이유로 쉬어 오를 수 있는 곳이다. 잠시 쉬려고 들른 곳에서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된다. 삶은 계속 흘러가고 잠시 쉬었다면 다시 힘을 내 어디론가 가야 하는 법이니까.

묘한 쓸쓸함과 고단함이 묻어있는 얼굴과 대조적으로 은근히 코믹하면서도 엉뚱한 세 배우의 앙상블 연기가 흥미롭다. 한 편의 부조리극처럼 보이기도 한다. 얼굴에 시를 담고 있는 듯한 배우들의 연기와 감독의 연출이 반짝 반짝 빛나 보이는 영화다.

김씨네클럽 이지혜



무비스타 시혜지

한국 | 2024 | 다큐멘터리 | 27min | DCP | Color | G

시혜지 대표는 조치원에서<시네마다방>이라는 독립영화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녀가 이곳에 터를 잡게된 이유는 영화 <반칙왕>의 촬영지였던 연기복싱체육관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3년 11월부터 연기복싱체육관이 철거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신동훈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으며 매일 영화를 보며 배우의 길을 걷고 있다. 독립영화관과 영화제의 현실을 조명한 첫 단편영화 <무비스타 시혜지>(2024)를 통해 목포국제영화제 1호선독립영화제에서 로컬부분 작품상을 수상했다.

상영작 추천사

동료에게 불같이 화를 내다가 영화제에 손님이 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냅다 절을 하는 여자가 있다. 무비스타 시혜지다. 그녀의 삶은 영화로 가득 차 있다. 극장을 운영하고 영화배우가 되고 조치원에서 영화 <반칙왕>의 촬영지인 연기복싱체육관에서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리고 그곳은 곧 철거된다. 지역사회에 돈이 안 되는 이유다. 돈만 밝히는 속물들 때문이다. 물론 시혜지도 돈을 원한다. 하지만 이유는 속물들과 달리 영화를 너무 사랑해서다. 그녀의 삶은 마치 영화와 같이 항쟁적이다. 영화 속 시혜지의 연기를 글로만 응원하지 않겠다. 대신 가까운 독립영화극장에 가서. 영화제에 가보자. 당신이 영화를 정말 사랑한다면 일상성을 지키고 다양성을 펼치고 싶다면, 영화 속 시혜지의 대사를 경험하길 바란다.

김씨네클럽 이웅준



미래의 집

한국 | 2023 | 극영화 | 30min | DCP | Color | 15

가족과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트랜스젠더 미래는 폭행 합의금을 통해 자신의 집을 마련하려고 한다.

류형준

1996년 출생. 서울예술대학교 영화과 학사. 2023년 <미래의 집>을 연출하고 2024년 <싸대기>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상영작 추천사

“그냥 솔직하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는 미래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어느 순간 숨기지 않는다. 트랜스젠더라 일자리도 얻기 힘든 현실에서 그래도 인간답게 살 만한 자기만의 방을 구하려고 엉뚱한 방식으로 세상에 도전장을 내미는 양증맞은 ‘미래’를 연기한 배우는 김최웅 준이다. <정순>, <기기묘묘>, <한공주> 등 8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의 스펙트럼은 넓다. 악함과 선함을 넘나들고 시선이 날카롭지만, 무표정한 얼굴과 몸짓에 당당함과 내면의 반짝임이 느껴지는 배우다. 속을 알 수 없는 오묘한 표정과 시선이 매력적이라 영화에 계속 물입하게 된다. 집 안에서 집 밖에서도 자신의 안식처를 구할 수 없는 세상에 맞서 절규처럼 토해내는 폭력에 마음이 찡해온다. 결국 집을 마련하고자 마는 ‘미래’의 미래를 어느 순간 응원하게 만드는 영화인 <미래의 집>을 진정 추천한다.

김씨네클럽 이지혜

마이디어

한국 | 2023 | 극영화 | 24min | DCP | Color | 12

2027년. 청각장애를 가진 대학 졸업반 학생 가을은 팀으로 진행되는 졸업 작품 참여 여부를 묻는 교수의 질문에 고민에 빠진다. 한편,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AI 앱 ‘마이디어’에 관심이 생긴 가을. “지금 마이디어와 대화해 보세요” 가을은 자막 기능을 실행해 어플 속 남자와 대화를 한다. 남자와 대화하며 가을은 자주 웃게 된다.

김소희, 전도희

김소희 감독은 천안에서 태어났고 송실대학교를 졸업했다. <해로>(2020), <소년>(2021)의 작품이 있다. <마이디어>에서 공동 연출과 편집을 담당했다. 전도희 감독은 원주에서 태어났고 송실대학교를 졸업했다. <마이디어>에서 공동연출과 각본, 주인공 가을을 연기했다. <마이디어>는 2023년 부산국제영화제 신재상/왓차단 편상, 2024년 경상북도 국제시.메타버스영화제 대상을 받았다.

상영작 추천사

24분 정도의 단편인 <마이디어>라는 작품을 만났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이다. 청각장애를 가진 대학 졸업반 학생 가을이 AI 앱 ‘마이디어’를 접하면서 어플 속 연인과 점점 빠져들게 된다는 내용이다. 현실의 편견과 배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을의 심리적인 변화를 잘 표현해내고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집중력을 가진 영화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은 주인공 가을 역을 맡아 열연한 전도희 배우 겸 감독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어눌한 말투만을 표현한다고 해서 청각장애인 가을의 내면적 고뇌와 심리를 관객들이 공감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배우의 연기는 깊이 있고 어색하지 않다. 마지막 불꽃놀이 장면에서 AI 연인과 가을의 재회는 소통의 벽이 생겨도 서로를 환대하는 관계의 희망을 보여주고 싶은 진심이 느껴져 전도희 배우의 감독으로서의 앞날도 기대된다.

김씨네클럽 정희숙

동네가게 스폰서

동네책방 생의 한가운데

주소: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 1365번길 10-11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7시 전화: 010-6590-9321

‘생의 한가운데’는 2015년 인문공간으로 시작하여 사람과 사람, 책과 사람을 잇는 문화 공간이자 지역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은 동네 책방입니다. 책도 판매하지만 시민이 함께 공부하고 배우는 우정과 현대의 공간으로 동서양 인문공부, 청소년 마을학교, 글쓰기 모임, 문화 공연 등 책을 매개로 지역과 소통하고 세상과 이어지는 공부와 활동을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책방은 지금도 생의 한가운데에서 인문적 삶을 열망하는 누군가의 발걸음을 늘 기다립니다.

스폰서 혜택 영화제 기간 중 티켓 소지자에게 커피와 도서 10% 할인 (청년, 청소년은 20% 할인)



파머스가든

주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060 김해문화의 전당 M층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9시 전화: 0507-1409-5673

김해문화의전당 M층에 위치한 수제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농부의 마음처럼 이곳에는 모든 재료를 손수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마들렌, 스콘, 에그타르트 등을 직접 구워내고 있으며 음료에 들어가는 시럽 하나하나를 손수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쌀쌀해지는 겨울 주인아주머니가 직접 담근 따뜻한 생강라테, 파우더가 들어가지 않은 속라테, 진짜 바닐라빈이 듬뿍 들어간 바닐라 라테는 파머스가든만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건강한 베이커리와 단맛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꼭 방문해야 할 카페 맛집입니다.

스폰서 혜택 영화제 기간 중 티켓 소지자에게 한하여 음료 10% 할인



동네가게 스폰서

밤비공기 김해본점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23번길 32 1층
 영업시간: 오전 10시 30분~오후 5시 30분
 전화: 010-8340-6694 SNS: @bbgg.cafe

김해 젊은이들의 명소인 봉황동 봉리단길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추억의 오락기로 간단히 손을 풀고 벽면 가득한 그림낙서를 따라 꼬적이다보면 어느새 편안하고 아늑한 레트로 감성에 젖어 듭니다. 커피와 디저트 메뉴의 연구자라 불려도 좋을 만큼 매일 바뀌는 눈길 끄는 맛있는 디저트와 시그니처 롱블랙을 비롯한 다채로운 음료는 친절함 응대와 함께 맛보길 적극 추천합니다. 밤비공기는 비가 오고 난 후 상쾌한 밤공기의 느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귀여운 아지트 다락방도 빠뜨리지 않기를!

스폰서 혜택 영화제 기간 중 티켓 소지자에게 모든 음료10% 할인과 롱블랙 무료 리필
 2만 원이상 포장주문시 롱블랙 한잔 서비스 (밤비공기 본점에 한함)



카페엣블리

주소: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1325번길, 1층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7시, 일/월 정기 휴무
 전화: 0507-1366-2575 SNS: @cafe_et_ble

연지공원 뒤쪽 주택가 골목에 위치해있는 카페엣블리는 커피 (cafe) 그리고 (et) 밀(ble)이라는 프랑스로 프랑스 제과를 기반으로 한 1일 한정 수제 디저트와 스페셜 티, 블렌드 커피 및 직접 담은 수제청 티와 에이트를 판매하는 작은 디저트 카페입니다. 유럽 빈티지 감성과 맛있는 디저트, 커피와 함께 직접 만든 귀여운 소품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는 카페엣블리. 꼭 놀러오세요.

스폰서 혜택 영화제 기간 중 티켓 소지자에게 디저트류 20% 할인



동네가게 스폰서

공원반점

주소: 경남 김해시 봉황대안길 35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7시 30분 (월요일 오후 3시까지,
 정기 휴무 화요일) 전화: 0507-1344-9676

시(詩)를 쓰는 주인장이 운영하는 오십 년 전통의 수타 중화요리 전문점입니다. 구도심 봉리단길 오래된 골목에 자리잡고 있는 소박하고 허름한 가게이나 입소문으로 알음알음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매일 새벽시장에서 구매한 신선한 재료와 오랜 노하우로 깊은 맛을 내고 있으며 주문 즉시 볶아내는 춘장과 갓 썰어낸 양파의 조합이 끝내주는 간짜장과 볶음밥이 별미인 곳입니다.

스폰서 혜택 영화제 기간 중 티켓 소지자에게 한 테이블 당 음료 한 병 무료 제공



그랑바&미미버거(미미포차)

주소: 김해시 금관대로1368번길 8-1, 1층
 영업시간: 수~일 오후 12시~ 오후 10시, 월/화 정기휴무
 전화: 0507-1342-5987 SNS: @grangva_cafe

김해문화의전당 근처에 있는 오래된 전통을 가진 카페입니다. 원목 느낌의 차분하고 모던한 실내 분위기가 유럽 감성을 떠올리게 하는 카페입니다. 원두를 직접 볶고 디저트도 직접 만드는 곳이라 맛있는 수제 커피와 다양한 차를 맛볼 수 있습니다. 2층 미미버거&미미포차는 그랑바와 연계된 곳으로 낮에는 햄버거와 식사류, 저녁에는 술과 안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각종 요리대회에서 수상한 셰프의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입니다.

스폰서 혜택 영화제 기간 중 티켓 소지자에게 커피, 음료 10% 할인 제공 / 2층 미미버거&미미포차 - 티켓 소지자에게 테이블 당 탄산음료 또는 주류 1병 무료 제공



작품색인

0~9

8월의 크리스마스

ㄱ

계약만료

관 값

꿈은 이루어진다

ㄴ

나의 올드 오크

누룩의 시간

ㄷ

도애의 시간

동주

말에 대하여

ㄹ

로봇 드림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

ㅁ

마이디어

모르게

목욕

무비스타 시혜지

미래의 집

ㅂ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복순씨의 원데이 클래스

ㅅ

살이 살을 먹는다

순간! 화원

슈퍼히어로

쏘아올린 불꽃, 밑에서 불까?

옆에서 불까?

ㅇ

야식금지클럽

양림동 소녀

어른 김장하

우도마을 다이어리

ㅈ

장손

졸음쉼터

주인을 찾습니다

ㅊ

춘정

ㅋ

ㅌ

ㅍ

파눔티콘

퍼펙트 데이즈

ㅎ

핸드메이드 케이크

헤어 나올 수 없는

혼자

후회하지 않는 얼굴

흐린 영화

필름제공처

8월의 크리스마스
이가홍
dearmybom@gmail.com

계약만료
미디어랩 독감경보
medialab_flu@naver.com

관 값
숭실대학교 영화예술전공 배급팀 SSUT
dooiddgg@naver.com

꿈은 이루어진다
남궁연이
lotusdl@naver.com

나의 올드 오크
진진
jwk@jinjinpic.co.kr

누룩의 시간
박민경
outside28@daum.net

도애의 시간
씨엠닉스
cmnix_short@daum.net

동주
㈜플러스엠
lee.hyeonjeong2@megabox.co.kr

딸에 대하여
찬란
gp@challan.co.kr

로봇 드림
진진
jwk@jinjinpic.co.kr

류이치 사카모토 : 오퍼스
옛나인필름
jhjeong@at9film.com

미디어
필름다빈
film_dabin@daum.net

모르게
박재현
pywooon@naver.com

목욕
인디스토리
shorts@indiestory.com

무비스타 시혜지
넛띵벳필름
nbf170626@gmail.com

미래의 집
넛띵벳필름
nbf170626@gmail.com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인디스토리
shorts@indiestory.com

복순씨의 원데이클라스
최범찬
ordtiger@naver.com

살이 살을 먹는다
전소영
deyimanzou@gmail.com

순간! 화원
이용준
june3377@naver.com

슈퍼히어로
박범진
beomjin1014@naver.com

쏘아올린 불꽃, 밑에서 불까?
옆에서 불까?
미디어캐슬
dyddka401@playmovie.net

야식금지클럽
김은영
4802gnuoy@naver.com

양림동 소녀
필름다빈
film_dabin@daum.net

어른 김장하
시네마달
community@cinemadal.com

우도마을 다이어리
유최늘샘
veritasaem@hanmail.net

장손
인디스토리
feature@indiestory.com

졸음쉼터
넛띵벳필름
nbf170626@gmail.com

주인을 찾습니다
최지은
teachoi29@nate.com

춘정
인디스토리
shorts@indiestory.com

파눔티콘
씨앗
kaniseed@kiafa.org

퍼펙트데이즈
타캐스트
jhha@tcast.tv

핸드메이드 케이크
순미경
smg1124@naver.com

헤어 나올 수 없는
이한오
ktmdk@naver.com

혼자
이세진
bluejini23@naver.com

후회하지 않는 얼굴
노영미
hypertimes@gmail.com

흐린 영화
장서우
jjangseou2019@gmail.com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 INDIEGROUND



04536 서울시 중구 명동8길 27, 엠플라자 5층 | Tel 02.757.0999 | E-mail indieground@indieground.kr
Facebook @indieground.kr | Instagram @indieground.kr | Youtube.com/indieground_kr

김해시민영화제를 만든 사람들

김해시민기획단 김씨네클럽

강영수 김명래 김선경 김유리 박선해 박재은 박진선
손인자 이용준 이지혜 정동준 정소영 정현주 정희숙

김해 모던 심포니

강민희 김남아 김보곤 김은희 김지현 김혜성 문동원
박민음 박은주 배은희 안상우 안지형 윤예원 이보배
이부영 이윤주 장보미 조가진 진소영 하경륜 하늘예린

그림책모임 다평클

김경임 김영현 김은주 김인정 박정화 박태남 임미순
정혜란 최순미 한숙월 한정희 한주희

대구 참새씨네방앗간

권지은 김경희 김용남 이로운 이수연 이영주 이우진
임혜연

도원재능나눔봉사단

구양언 박동진 송진근 유석 이기두 조태진 조현우

산해정인성문화진흥회

강선기 박선해 안정희 정옥이 허남철 홍우승 홍은정

영재키움프로젝트 상상을 현실로

강석기 구은복 김계수 박재흠 박현성 이슬민 천병기
최철원 하재설

책방 묘미

김미숙 김순덕 김연하 박남숙 이혜진 장행영

부산 모듬이극장 관객활동가 10기

공지선 권에서 김찬우 박지은 이동주 이성전 정나래
정지은 조은별 채완석 최성훈 최시내 황수빈

서울 닳명벗필름

배국한 신진철 최아름

광주 독립영화관 씨포터즈 이글루

박선주 박소이 이예은 장은솔

목포 협동조합 시네마엠엠

김경애 김소정 김윤호 김주영 김한나 김현서 변민영
윤창민 이상명 이세은 이한숙 서현정 조재영 최민혁

김해시민영화제 프로그램 파트너

고수정 광주독립영화관 영상팀장
권현준 대구영상미디어센터장

김주완 기자

김지연 부산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김최용준 배우

김현지 감독

김희진 감독

남궁건 감독

방서현 수원문화재단 수원시미디어센터 주임

배은정 울산 커튼콜영화제 대표

순미경 감독

시혜지 배우

여채원 김해시민기획단

오민애 배우

유최늘샘 감독

이가홍 감독

이경민 광주독립영화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이미경 감독

이승우 대구단편영화제 사무국장

이영준 김해문화도시 센터장

이용준 감독

이준익 감독

이하늘 전주무명씨네 대표

이효정 원주옥상영화제 프로그램팀장

장서우 감독

장요훈 배우

전도희 배우

전상진 감독

정보경 감독

정성우 목포국도1호선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소영 김씨네클럽

정청비 파도씨네

제정주 아톰 프로듀서

차한비 리버스 기자

최은규 대구단편영화제 프로그래머

최정민 통영영화제 프로그래머

최현준 인천 미림극장 대표

김해시민영화제를 만든 사람들

시 읽는 영화제 선정위원

박선해 박진선 손인자 이용준

시 읽는 영화제 시 낭독단

김종대 김지연 김유리 노광훈 박선해 박승혜 박필봉
전지원 정현주 정태운 조태진 주성민 장소영 안정희
임다현 임서연 김도경 이지민 이지혜 이용준 이은아
박하늬 황기윤

모듬이극장

김현수 프로그램디렉터

김가이 홍보팀장

변혜경 배급팀장

윤다영 프로그램팀

이지윤 홍보팀

김은영 홍보팀

신예지 홍보팀

김해문화관광재단

최석철 대표이사

이영준 문화도시센터장

김민우 영상미디어팀장

전현주 영상미디어팀 차장

강경태 영상미디어팀 과장

김혜미 영상미디어팀 과장

박상원 영상미디어팀 주임

김민승 영상미디어팀 대리

최선영 영상미디어팀 팀원

주현연 영상미디어팀 팀원

최영향 영상미디어팀 팀원

김해시민영화제는 김씨네사람들 자원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해시민영화제는 텀블벅을 후원한 119명의 시민 관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주최** 김해문화관광재단
주관 경상남도 영상미디어센터 **모듬!** 관객문화협동조합 **모듬이극장**
후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동기획 김씨네클럽 그림책모임 다평클 대구 참새씨네방앗간 도원재능봉사단
 부산 모듬이극장 관객활동가 10기 영재키움 프로젝트 연구회 상상을 현실로
 책방 모미 산해정인성문화진흥회 서울 낮명벗필름

발행정보

- 발행처** 김해문화관광재단
제작 김해영상미디어센터
총괄 이영준
감독 김민우
담당 전현주
책임편집 김현수
편집 김가이 변혜경 윤다영
콘텐츠 김선경 박선해 박진선 이용준 이지혜 전현주 정동준 정현주 정희숙
교정교열 손인자 이지혜 정동준 정희숙
디자인 김현정 민트디자인
인쇄 모듬이인쇄소

인터넷 주소 <https://gimsotong.kr/>



지난 20년간, (주)좋은콘서트는 관객 여러분께 공연콘텐츠를 통해 행복과 감동을 선사해드리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콘서트, 뮤지컬,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콘텐츠들을 제작하였으며, 주력사업으로는 대한민국의 주요도시와 중소도시를 오가며 활발하게 공연투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티켓판매대행 플랫폼 개발, 영화, 영상콘텐츠 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께 찾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좋은콘서트 대표 프로듀서 최민선



2025년 상반기 개봉 예정
 ※ 김해를 배경으로 한 영화 <컨설턴트>



Culture



Tour



Sport



문화와 관광을
모두의 복지로 실현합니다



김해문화관광재단
GIMHAE CUL-TOUR FOUNDATION





2024 김해시민영화제 폐막작 <무이죄 사카모토 : 오퍼스>

2024 김해시민영화제 **가시서체**